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2호 2017년 4월 5일 수요일

내년부터 '은퇴자출가' 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진통 끝 은퇴자출가법 통과

51~65세 대상, 권리제한 有

내년도부터 연령 51~65세 은퇴자들이 조계종 승려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단 승려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제한이 따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7~31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서 '은퇴자출가에관한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출석의원 52명 중 39명이 찬성했다. 반대 5명, 기권 8명.

이날 회의서 종회의원들은 은퇴자출가법을 놓고 장시간 토론했다. 그만큼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내용은 권리제한이었다. 출가제도특위가 성안한 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승려 기본교육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비롯해 법계는 견덕 · 계덕까지만 가능하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 임명이 불가하다. 이를 두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덕산 스님은 "비구계를 받아 종단구성원이 됐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가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수암 스님은 "특별법에 의한 구제법안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사항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종령에 세부사항을 정해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평등을 위해 현행 승려법의 출가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서 좌차와 습의생활 등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중앙종회는 결국 오후 회의서 은퇴자출가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출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은퇴출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총무원과 교육원 등 집행부 관련 부서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퇴출가자는 수행사찰서 최소 1년간 행자생활을 한 뒤 계단위원회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서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한다. 비구 · 비구니계는 사미 · 사미니로서 5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주요 안건 또다시 미뤄져

한편 이번 중앙종회 최대 관심사였던 '멸빈자 사면'과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종헌개정안은 모두 이월됐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은 불가능해졌으며,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 역시 오는 10월 선거서는 적용키 어려워졌다.

멸빈자사면 개정안은 종헌특위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부칙 삽입을 통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종헌위배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른 종헌 개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멸빈자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다.

추첨제와 직선제로 나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안은 기존 특위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 통합적인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제출키로 했다. 두 안건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새 특위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초격 스님이 선출됐으며,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승려 기본교육 면제 따라
선거권 · 피선거권 등 제한
15년 사회 경력 증명해야
사면 · 선거제도 등 이월돼

하지만 추첨제를 다룬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는 지난 종회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직선제특위 또한 성원되지 않는 등 동력이 떨어져 새 특위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제16대 중앙종회 임기가 내년에 만료돼 35대 집행부가 꾸려진 뒤에도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은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오는 4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 후임으로는 철웅(마곡사) · 설정(수덕사) · 법타(은해사) · 성타(불국사) · 지하(쌍계사) · 월주(금산사) · 보선(대흥사) 스님이 만장일치 추천됐다. 또한 성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는 前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법장을 봉정받은 뒤 대중에게 두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새 시대를"

조계종, 14대 종정 진제 스님 추대법회 봉행

시대 부합하는 종교 강조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

조계종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온 진제 스님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향후 5년 동안 종단의 신성이자 종통을 상징하는 선지식으로서 대중을 위한 깨달음을 전하게 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27일 오후 서울 조계사서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법회'를 거행했다. 법회에는 종단 집행부스님들을 비롯해 각 종단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정관계 인사, 불자 등 1만여 명이 운집해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를 기념했다.

진제 스님은 현재의 국가적 상황과 관련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 속에 있다. 상호존중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자유와 평화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와 자기집단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대중에게 "불교는 시대의 아픔인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또한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부합하는 종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시고, 자리를 분해 같이 앉으시고, 돌아가신지 7일 후에 두 발을 내보이신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봄이로다. 산마루에 구름이 걷히니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고 법어를 했다.

법회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하메시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황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계승한 종정예하께서는 우리 불교에 정신적인 지도자이시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대화합을 제시하셨다"며 "서로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원융회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 온 국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서 출생해 1953년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8년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으며,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내려오는 정통법맥을 이어 불조의 제79대 법손이 됐다. 선학원 이사장과 중앙선원 조실,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기본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부산 해운정사 조실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월호 인양, 이제 시작 미수습자 모두 찾아야"

조계종 사회노동위, 성명 발표
참사 해역서 4대 종교 기도회도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참사 해역서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4대 종교가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진도본당, 개신교 호남신학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는 3월 28일 세월호가 인양된 반잠수정 인근 200m 앞 해역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행사를 개최했다. 4대 종교는 각 종교의 방식으로 기도를 봉행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과 사회국장 지상 스님,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혜용 스님과 지상 스님은 반야심경 봉독 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앞서 사회노동위는 3월 26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인양은 이제 1차 인양이 완료된 것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양완료"라면서 "정부는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는데 있어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처럼 우왕좌왕하거나 무책임성을 보여줘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9일 국회서 위원이 확정되는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해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달하기 전 미수습자 수습 계획을 명확히 내놓아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사회노동위는 "사고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선체조사도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병행해 조사하는 방법을 정부와 선체조사위는 강구해야한다"며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천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노동위는 9명의 미수습자가 온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목포 신항만의 세월호 옆에서 기도를 봉행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인양 후 거치될 목포 신항에 임시법당을 설치,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발원하는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박아름 기자**

특별기획 A7면
세월호 참사와 함께한
조계종 1085일의 기록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문수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조계종·현대차 GBC건립 첫 대화, 소통은 없었다

3월 3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서 갈등 증폭

조계종 "환경평가 부실, 협의체 구성"

현대차 "법적 하자 없다" 강행 의지

전문가 "형식절차 불과, 공동조사해야"



이병인 부산대 교수(사진 오른쪽)가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대차 측(사진 왼쪽)이 곤혹스러운 듯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봉은사 인근 현대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을 두고 조계종과 현대차의 첫 대화가 이뤄진 가운데 봉은사 문화재 영향평가 시행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현대차 측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2차 공청회 등 시민들의 요구에도 현대차가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공동위원장 지현·원명, 이하 봉은사 대책위)는 3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현대차신사옥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현대차 그룹 측과 사업 발표 후 2년 만의 첫 공식대화를 진행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105층에 달하는 GBC 건립에 대한 조계종의 각종 문제제기에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청회서는 이중열 현대차 그룹 상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조계종 측을 대표해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건립계획에는 1천년간 강남 중요 랜드마크였던 봉은사의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역사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사전검증 및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대차 용역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만 유지하고 있다. 환경실측도 단기간 진행됐으며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공동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발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현대차 용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실측조사에 활용한 ENVI-MET 모델은 실제 온도보다 7~13도 더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모델을 쓰고서도 5월 2일 28.75도로 측정됐다.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가면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GBC건립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평가 초안에는 GBC건립 후 늘어날 차량 오염물질 적용구간도 300m로 잡았으며, 이마저도 디젤 승용차 등을 포함한 승용차의 PM수치는 0으로 계산했다. 적용구간을 최소 2km구간으로 넓히는 등 정확한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인 윤주열 대표이사는 "본안에는 지적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전해준 봉은사대책위 팀장은 "오늘 지적된 부분의 본안 반영 및 이후 시민들의 문제제기 반영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과정이 없지 않느냐"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실측조사를 진행하고, 2차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또 봉은사 문화재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열 현대차 상무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초안 공청회는 본안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 오늘 의견은 본안에 반영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협의체 구성 및 2차 공청회 개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이 상무는 봉은사 문화재 영향평가에 대해 "봉은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사찰이며 일반시민 등이 찾기 쉽고 친근한 사찰인 것을 알고 있다. 강남 도심에 있기에 제한이 있는 듯하다. 아셈타워나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철 9호선 공사 당시에도 문화재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GBC타워와는 500m 넘게 떨어져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대책위 측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 문제없다는 현대차 측의 입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결여돼 있다. 급속으로 진행 중인 초대형 개발은 정경유착의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누락 및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4월 20일 '현대차 신사옥 초고층 초대형 개발에 대한 진단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를 주제로 자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산 스님 "직선제 추진, 10번이고 한다"

3월 24일 기자회견서…4월 7일 종회서 도입 결정

종회에 종법 개정 요청
임기 내 도입 지속 추진
"선출 시 즉각 퇴임할 것"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제로 한 태고종 중앙종회 제128회 임시회가 4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사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강력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도산 스님은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지방종무원장은 물론, 원로 스님들 모두 직선제 도입을 찬성한 상태"라며 "4월 7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종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발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승랍 5년 및 법계 선덕 이상 모든 종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선거공영제를 통해 후보자 합동정견 발표를 진행해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중앙의 선거장에서 전 종도가 모여 투표하며 일괄 개표한다.

도산 스님은 "선거권자는 약 2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태고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면 종단 위상을 높이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종단 대표자가 선출되면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스님은 "자격 조건에 의무금 납부 등이 있어 종단재정 확보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 집행부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도입 시 불출마 입장을 밝힌 스님은 끝으로 "애종심을 높이고 종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만큼 자리에 연연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부결된다면 10번이고 간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계 논문작성 규정 통일한다

14개 불교학술단체, 회동서 표준안 마련 합의

불교학계에는 10여 개 이상의 학술단체가 있고, 이들은 자신들만의 학회지를 가진다. 학회지에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학회지 규정을 따른다. 하지만 학회지마다 규정이 달라 처음 준비하던 곳이 아닌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규정에 맞춰 고쳐 쓰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이 학회지 논문작성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 대표자들은 3월 24일 회동을 갖고, 학회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논문작성 원칙을 통일키로 합의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문작성 규정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학회마다 전통과 원칙이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날 학술단체 대표들은 논의 끝에 "당장 혼선과 불편이 있지만, 후학의 편의를 위해 더 미룰 일이 아니다"면서 "논문작성 원칙과 관련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자"고 합의했다.

합의 동참한 불교학 단체는 △대각사상연구원 △대행선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염두 두지 않은 다른 학회지
투고 시 다시 작성해 '불편'
표준안 마련 논문 작성 통일
"후학 편의 위해 미루지 말자"
학술단체연합회 발족도 추진

△만해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인도철학회 △정토학회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등 14개 단체다. 불교학연구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을 제외하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은 대부분 합의에 동참한 것이다.

이들 불교학 단체들은 논문작성 원칙과 관련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호스님(한국불교학회),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원·만해학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귀 교수(한국선학회) 등을 실무추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신선혜, 최지연 박사는 간사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실무추진원회는 향후 표준안을 제안하고 여러 학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위 관계자는 "논문 작성의 간편성과 자료를 찾는 독자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교학계의 여러 논문작성원칙 외에도 사학계, 철학계 등 다른 학문분야의 논문작성법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문 작성 매뉴얼 등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대표자들은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발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불교학 연구와 관련된 한국 학술단체들이 세미나 일정과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나 각 학회 학술대회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축총림 방장 대행 수좌 성파 스님 맡아

주지 영배 스님, 통도사서 발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3월 25일 수좌 성파 스님〈사진〉을 방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25일 오전 원통방에서 "성파 스님을 방장대행으로 모실 것"을 발표하고 성파 스님의 주석처인 서운암을 방문했다. 이후 3배하며 성파 스님께 "앞으로 성심껏 보필하고 모실 것이다"고 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파 스님은 2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노천문도회의 한 스님은 "발표 전에 원명 스님과 주지 영배 스님 그리고 월파 스님 등 원로 어른스님들과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파 스님을 방장 직무대행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도사 방장으로 정식 추대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서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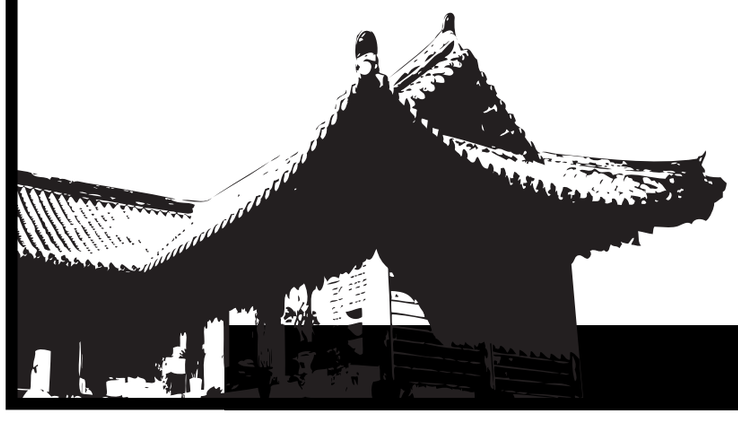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교학계 '4차산업' 논의 본격 시동

한국불교학회, 3~7월까지 월례 워크숍 개최

3월 25일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스님과 교수부터 사미 스님, 일반 재가자까지 들어찼다. 모두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의 '불교와 4차산업' 1차 월례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최호진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 교수는 알파고를 비롯한 IBM의 왓슨, 한국의 엑소브레인 등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정의, 향후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불교학회의 '불교와 4차산업' 월례 워크숍은 동일 주제 국제 학술대회에 앞서 4차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7월까지 5회에 걸쳐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불교학회의 월례 워크숍과 대규모 학술대회는 불교학계의 '4차산업'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 ·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교적 논의는 그간 전무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국제 대회도
불교평론, 겨울 특집 다뤄

시대적 논의 진행 '고무적'
4차산업 불교 역할 조명해야
'재현 위기' 바탕 논의 필요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은 "4차산업 시대는 현재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불교의 역할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4차산업'에 대한 논의는 진행해야 한다"며 "4차산업 기술의 이해와 전통적 불교가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워크숍과 국제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차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불교학 관련 단체는 한국불교학회를 제외하면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유일하다. 〈불교평론〉은 올 겨울호 특집으로 '4차산업'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불교학회는 3월 25일 동국대 만해관서 '불교와 4차산업' 월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7월까지 5차례 진행된다.

이제 첫 발은 내딛는 '불교와 4차산업'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4차산업 기술의 인식론적 접근과 응용 · 활용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로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강사)은 "불교는 세상의 이야기이며, 변화에 맞춰 시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종교다. 불교학계의 '4차산업' 관련 논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고무적"이라며 "이미 티베트 스님들은 유식과 뇌과학을 연계한 연구를 미국 대학서 진행 중이다. 한국불교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잉여 노동이 발생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문화와 정신수행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신수행 분야는 불교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4차산업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포교에 활용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4차산업 기술에 대한 불교적 인식론을 먼저 고찰할 것을 주장했다. 가상과 현실에 공존하는 디지털시대의 '재현의 위기론(the crisis of representation)'을 전제한 이 교수는 "산업 · 공학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는 4차산업 시대를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가상과 실재를 연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면밀히 봐야 4차 산업시대를 제대로 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청년불자·활동가 만난다

4월 21일 신대승네트워크 초청

세계적 시민사회 운동가이자 불교사상가인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박사가 방한해 한국의 청년 불자 및 시민사회활동가들을 만난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술락 시바락사 박사 초청 대화마당을 4월 21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마련한다. '불교,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사드 배치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상황을 비롯해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속에서 불교 및 시민사회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키 위한 자리다.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하나다. SNF와 SEM을 설립하고 태국을 비롯해 미얀마 · 캄보디아 · 라오스 지역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제공,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2회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에 지명된 바 있으며,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과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박아름 기자

"국민 공론 場서 사드배치 다뤄야"

불시넷, 정부 강행에 비판 성명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11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 27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는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한다며, 정부가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이미 이웃나라들의 반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시넷은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 국민과 대화로 풀어야한다면서, △한미 간 협정문서 공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유효성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 등 국민들의 물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세월'의 슬픔, 甘露로 달래다 〈감로〉

불화가 이수예 등 작업 감로도, 장곡사에 조성 봉안

세월호, 촛불집회, 소녀상 등 최근 대한민국의 시대상이 한 폭의 불화 감로도 안에 담겼다. 곳곳에 보이는 노란 리본과 팽목항, 세월호, 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광화문 광장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모습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불화가 이수예 작가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연구원 6명이 공동 작업한 장곡사 감로도가 4월 8일 하대웅전에 봉안된다. 세월호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조성된 이 감로도엔 참사 희생자들에게 아미타부처님과 7여래가 감로와 같은 법문을 베푸는 장면을 묘사, 희생자들이 극락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감로도는 180×177㎝ 크기로, 상 · 중 · 하 3단 구조로 구성된다. 상단은 불보살의 세계, 중단은 천도재를 지내는 제단과 법회 장면, 하단은 윤회를 반복하는 아귀와 고혼(孤魂), 중생들의 현실세계를 표현했다. 제작기간은 총 6개월이 소요됐으며, 작업 중 세월호 인양 및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작가들이 더욱 엄중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후문이다.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감로도 전체 모습.

이수예 작가는 "최근 벌어진 대재난과 사회적 문제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는 시대의 뒤쪽으로 사라지겠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정문화재 방재 시설 설치 의무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 · 시행

소방 · 재난 방지 시설 설치
도난 막기 위한 장치 강화

앞으로 지정문화재에는 방재 · 도난 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 마련과 공동연구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3월 21일 개정 ·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방재 및 도난 시설 설치가 신규 도입된 점이다.

신규 도입된 문화재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화재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토록 했으며, 소방 관련 법에 근거한 소방 · 재난시설 및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정 · 등록문화재와 보호물, 보관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과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문화재의 연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법 개정에 의해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 · 학 · 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문화재의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로 명시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돼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 '문화재의 공동연구 사항과 정기조사 근거 도입,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은 즉시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강원종교평화협의회장 선출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3월 29일 강릉 반석교회서 열린 제22차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종우 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3일 제32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 그리기 대회를 경내 범영루 광장에서 개최한다.



삼각산 산신대제 봉행

도서 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4회 신령스러운 삼각산 산신대제'를 봉행한다.



제10회 낙동강 방생 법회

무심 대구 달성 무심선원장 스님은 4월 9일 '제10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청주고인쇄박물관 유물기증

혜철 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3월 29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음보살도를 기증했다.



제4차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4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제4차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입사자 연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3월 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년 신규입사자 연수'를 개최했다.

120여 참가자들은 최종환 재단 사무국장의 '종단과 재단에 대한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재단 시설협의회 회장 화평 스님의 '불교사회복지사에게 바란다' 등 강의를 청취했다. 노덕현 기자

화촉 노수경 조계종 교육원 주임은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모카웨딩컨벤션 벨리스홀에서 신랑 이성원 씨와 화촉을 밝힌다.

"동문 화합 · 회관 건립 동창회 현안 해결할 것"

Interview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추대된 전영화 25대 회장



"지난 2년 어려운 시기에 동국대 총동창회 24대 회장을 맡아 전향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25대 회장에 재추대한 것은 동문 사회를 화합시키고, 부족한 것은 확실히 바로 잡으라는 선후배들의 권고로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문 화합과 회관 건립이라는 현안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전영화 회장(70. 옥토그린 대표)은 재추대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전 회장이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동문 화합'이다. 그간 동국대 총동창회는 양분돼 전임 회장들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임 회장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전 회장의 판단이다.

"사법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동창회라는 특성을 배제해서도 안됩니다. 우선 4명 전임 회장들의 명예회복과 복원 등을 현실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연택 회장 측이 불복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미래를 향해 가는 총동창회의 장애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화합의 총동창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간 총동창회의 숙원사업은 '동문회관 건립'이었다. 백년 사학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총동창회는 변변한 동문회관이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 전 회장은 역대 회장들의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자신의 임기 중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현재 총장 보광 스님이 학교에서 신축하는 첫 건물을 동문 회관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관 건립기금 22억 원이 학교에 기탁돼 있는 상황인 만큼 회관 건립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면 회관 건립안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건물을 착수하게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기금 모금을 활성해 회관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회장은 "동국대 총동창회를 백년사학에 걸맞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개교 111주년이 된 모교를 도와 일심동행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30만 동문들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군장병 마음에 희생 · 봉사 정신을 심자"

군법당 108순례 진행하는 구암 스님

군장병들을 보살피기 위한 작은 순례가 진행되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가평 청평암 주지 구암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 계조암, 낙산사 등에서 수행을 해왔고, 2007년 청평암을 창건했다.

스님은 포교 불모지였던 가평에서 포교방안을 모색했고, 군법당 순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07년 처음 시작한 108군법당 순례법회가 10년을 맞았다. 스님은 3월 26일 포천 번개부대 승법사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스님은 "자신이 머무는 법당의 불사보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포교가 선행돼야 불교 중흥을 이끌 수 있다"며 "특히 군포교가 중요하다. 청년불자들에게 사회에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자비의 사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으로써 포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구암 스님은 겸양을 표했다. 스님은 "보통 스님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욱 더 열심히 다뤄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군법당 순례 외에도 열악한 사세 속에 '꽃나무울타리장학회'를 만



들어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매년 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삶은 손 안에 쥐어진 한줌의 마른 검불 같은 것입니다. 참된 혜명은 생을 태우고 사를 태우고 다시 삼천대천세계를 태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종자연 차기 대표 류상태 前대광고 교목실장

3월 25일 2017 정기총회서 추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차기 대표로 류상태 목사〈사진〉가 추대됐다.

종자연은 3월 25일 2017 정기총회서 차기 대표로 류상태 목사를 추대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중앙대 철학과,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사 안수를 받았다. 숭의여중, 대광중고등학교서 교목으로 재직했다. 저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다.

종자연 측은 "류 목사는 지난 2004년 당시 예배선택권을 주장했던 강의석 학생



이 재학 중이던 대광고교의 교목실장이어다. 류 목사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강의석 학생을 보호하려다 끝내 교목을 사임하고 학교를 떠났으며, 교단에 목사직도 반납했다"며 "학교를 떠나서도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포럼, 〈성철 평전〉 저자강연



불교포럼은 3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소설 〈성철 평전〉의 저자인 김택근 작가를 초청해 제23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택근 작가는 "성철 스님이 생전에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과 삼천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깨달음과 수행을 위한 돈오돈수론을 가르쳤다"며 "이같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조계사, 백송대학 입학식



조계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인 백송대학을 개설하고 3월 24일 대웅전에서 백송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 부주지 원명 스님, 교육국장 승묵 스님, 김의정 신도회장, 입학생 16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송대학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삶의 지혜를 배운다. 매주 목 · 금 오후 2시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 강좌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수요시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3월 29일 제127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 일동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주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자 국민들이 부정하는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고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마음법 배울 한마음유치원, 구정탑과 함께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3월 25일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을 대웅보전아래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왼쪽 세 번째)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이 구정탑 제막을 진행하고 있다.



혜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불사를 통해 마음법을 아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한 스님들이 ‘자성본래불’ 정근과 함께 구정탑 탑돌이를 시작하고 있다.



한마음유치원 준공식에 참여한 스님들과 내빈들은 테잎을 커팅하며 인재불사를 발원했다.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행 스님의 음성 법문을 듣기 위해 입정으로 마음을 고르던 대중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죽비 삼아 눈을 떴다. 그리고 대행 스님의 법문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서천국 아미타불과 한도량에 있어요. 탑돌이를 할 때는 주인공 만이 나를 바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체를 주처에 몰아넣는 마음으로 돌면 됩니다. 자기 탑은 자기가 쌓는 겁니다...(중략) 우리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합니다”

구정탑이 모습을 드러냈고 ‘한마음 유치원’이 문을 열었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대행 스님의 원력이 세상을 도화지 삼아 이뤄지는 현장을 2000여명의 대중이 바라보고 축하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3월 25일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을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이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뉴욕지원 원공 스님 등과 한마음선원 본원 및 지원의 여러 대중 스님이 참석했다. 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공한수 부산시의회 의원, 한마음선원 본원 명을식, 김화남 前신도회장 등 신도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먼저 삼귀의 및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독송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개요가 대중에 소개됐다.

또 구정탑 불사와 한마음유치원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정근 (주)영동 대표이사, 김한열 (주)보광석재 대표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윽고 제막의 순서가 다가왔다. 대중들이 함께 목소리 높여 불법승을 외치자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뜻을 담은 둥근 모양의 9층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석으로 조성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구정탑은 석공이 직접 손으로 쪼는 ‘고운 정다듬 공법’으로 시공돼 다른 화강암 보다 따뜻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구정탑이 세워져있는 앞마당과 대웅보전으로 잇는 서하교 계단에 대중들은 빼곡히 서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합장하며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의 헌화에 이어 박해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을 대중들은 함께 하며 내 안의 스승에 귀의하는 탑돌이로 끊임없이 내면을 밝혀갈 것을 서원했다.

기념사와 인사말 그리고 축사도 이어졌다. 혜수 스님은 “구정탑은 세상만사가 통하는 길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원에 최초로 세워주신 구정탑과도 통신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 같다. 부산지원이 10여년 간의 법당 불사에 이어 유치원 준공식을 여니 이 도량이 꽉 찬 듯하다”며 “앞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이어지는 불사와 더불어 마음 불사도 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오늘 모셔진 이 탑은 일체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셨던 큰스님의 원력과 자비로 우뚝 선 것이다. 자기의 탑은 자기가 세우는 것이라 하셨던 가르침을 더욱 새기고 내면의 근본을 떠나지 않은 마음의 탑돌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잠시 감격으로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한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듯 눈물을 삼켰다.

대행 스님의 원력 담은
구정탑과 한마음유치원 불사
“마음의 교과서 일러 줄 도량”
전국서 2000여 대중 모여 축하

스님은 “지난 3월 2일부터 한마음유치원이 문을 열어 마음법을 접목한 유아교육의 새장을 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공생의 마음을 쓸 줄 아는 미래의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하며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은 “오늘 제막하는 구정탑은 부산지원의 신행활동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부산 불교 더 나아가 한국 불교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불교계에 유치원은 앞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래 포교의 희망이다”라고 축하했다.

제막식 마지막 순서에서는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탑돌이의 시작을 알리며 참가한 스님들이 ‘자성본래불’ 정근과 함께 탑을 돌았다.

제막식 후 한마음유치원 앞으로 다시 모인 대중들은 화합재로 축하하고 테잎 컷팅식으로 유치원 개원을 축하했다.

유치원은 약 600여평의 규모로 지상 2층엔 교실 및 교육 시설 공간과 지하 2층은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어느 누구나 편히 방문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건물 아래에 조성된 텃밭에는 3월에 입학한 아이들의 손길로 자란 야채들이 있었으며 복도 끝에는 신나게 뛰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원할 정도로 규모가 넓은 7개 교실은 아기자기한 교육 용품과 의자와 책상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으며 안전함을 신경 쓴 소품과 아이들의 작품에 대중들은 미소 짓고 부러워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행단체 심정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예태순(68)불자는 “저희 손녀는 양산지역에 있어 너무 멀어서 여기 까지는 못 다닌다. 너무 아쉽다. 무엇보다도 주인공 자리, 내안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좋은 교육도량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학년과 5학년 두 남자 아이들과 함께 선원을 찾은 이자혜(38)불자는 “어린 자녀가 있었다면 아무 고민 없이 보냈을 텐데”라며 “무엇보다 선생님과 스님 모두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셔서 아무 편견 없이 아이들을 봐주실 것이란 큰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한 아이들이 한마음유치원 가방을 멘 꼬마 아이를 발견하고 “저 아이 유치원 다니나봐요”라며 “좋겠다”며 소리치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마음유치원 가방을 멘 꼬마아이는 5세반에 입학한 옥준석이라고 소개했다. 준석이의 어머니 문서아(32)씨는 “오늘은 유치원 쉬는 날인데 개원식도 보고자 겸사 올라왔다. 사실 이 근처에 살고 유치원이 새롭게 생긴다는 말에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오늘도 가고 싶다고 해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 하원을 할 때도 신을 벗자마자 언제 또 가냐며 반복해서 묻는다”며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혜운 스님은 교육의 목표는 누구나 본래 밝아있는 마음의 힘을 믿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형식의 종교를 초월해 자신의 마음을 시작으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조절함으로써 모든 생명과 공생하는 도리를 가르친다면 형식을 떠나 이것이 불교이며, 아이들이 이를 실천한다면 이미 이 아이는 불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유치원은 2013년 12월 교육환경평가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8월 24일 완공 했다. 2016년 10월 10일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3월 2일 개원했다. 인가인원은 7개 학급 162명이며 강당, 교사실, 조리실, 보건실, 놀이터 및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하성미 기자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도심사찰, 도농상생 나섰다

조계사 등 서울 지역 사찰,
농특산물 판매 등 업무협약

조계사 · 함평군 '상생효과' 톡톡
의성 · 해남군도 직거래 동참
봉은사도 평창군과 2월 협약 맺어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 사진 오른쪽)는 3월 22일 의성군과 '도 · 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서울 도심사찰들이 각 지자체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2일 경내 관음전에서 의성군과 '도 · 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성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으며, 의성군의 우수 농산물 공급 및 조계사 내 직거래장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성군은 조계사에서 사용하는 공양미뿐만 아니라 인근 복지센터에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 하루 5000여 명의 신도들이 찾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의성의 우수한 농 ·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8월 의성 고운사에서 열린 '조계사 하안거 생명살림기도 행사' 가 계기였다. 당시 열린 직거래장터에서 의성 농 · 특산물이 조계사 신도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의성군에서 협약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2011년부터 함평군과 국화축제를 매개로 한 도농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함평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 앞서 10월 경 조계사에서 국화 전시와 함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연간 4차례 장터 등을 통해 4억 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향대전 홍보도 배가해 지자체 축제로는 이례적으로 2015년부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계사는 2013년부터 해남군과도 함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2월 10일 경내 법왕루에서 평창군과 관광인프라 공유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창군은 2016년 4월 월정사 방생법회 당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초하루 봉은사 일주문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평창군 절임배추를 봉은사 김장에 전량 제공하기도 했다.

천태종도 지난해부터 서울 관문사를 비롯한 도심 사찰에서 본산 구인사가 위치한 단양군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단양군이 지난해 서울 관문사 등 천태종 사찰 5곳 등에서 판매한 농 · 특산물매출액은 7억2000여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 도안사(회주 혜자)가 진행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이런 도농상생의 효시로 평가 받고 있다.

직접 지역을 찾아가 도농상생을 위한 농 · 특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다. 매회 5000여 명씩 지역 순례에 동참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2006년부터 11년 간 진행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매출액은 3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사 관계자는 "법회에 참여하는 보살들이 주로 60대 여성들인 관계로 농 · 특산물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어르신들의 법회 참여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농특산물 직거래와 함께 다양한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차별없는 세상, 다 함께 만들어 가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23일 범사회적 나눔행사 개최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을 전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더 나눔' 은 사회복지재단이 17년간 진행해 온 '난치병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의 확대 행사로 난치병어린이 외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여한다. 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후원자 등 총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함께한다.

홍보대사 김성녀와 양하영, 가수 장윤정과 박완규 등도 음성공양을 통해 희망과 감동이 넘치는 나눔 한마당 만들기에 함께 한다. 또 행사에서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이 호전된 김성재 어린이가 참석해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또 국내 및 라오스에서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상소개, 치료비 모연금 전달식 등도 진행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나눔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행사를 통해 메말라가는 인간애를 되살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더 나눔' 행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매일유업, 이마트 등이 후원한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위드아시아,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광명 선사

캄보디아 쁘레이끄랑 마을에 전기 및 교육용 TV 지원

전기가 없어 밤이면 칠흑보다 어둡던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 자비의 빛 한줄기가 내리게 됐다. 불교계 NGO 위드아시아가 전기를 보급한 것이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3월 22일 캄보디아 쁘레이벵주 쁘레이끄랑 마을에 전기와 교육용 TV를 지원했다.〈사진〉



쁘레이끄랑 마을은 전기가 없어 밤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다. 캄보디아 국가 전체 전기 보급률은 68%에 달하지만 수도권이나 도심에 집중돼 있어 시골지역은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직접 전봇대를 구입해야해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굉장이 어려웠다.

이번 위드아시아의 전기 지원으로 200여 주민들이 전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마을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캄보디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전기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터부 쁘레이뽀은면 면장은 "수백 년 동안 전기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TV를 통해 전 세계 뉴스를 보며 마을 아이들이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 소외계층 및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불교계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2년 간 북한 어린이 인도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인도 · 태국 · 라오스 · 미얀마 ·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 건립과 더불어 우물, 지붕 개보수 등 진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태허 스님 48주기 추모재, 4월 12일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서울 현충원 현충관서 개최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사진〉 48주기 추모재가 국립서울현충원서 4월 12일 봉행된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대표 민성진)는 태허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제48주기 추모재' 를 개최한다.



이번 추모재에서는 유족, 관련단체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개식, 국민의례, 태허 스님 약사보고, 내빈추모사, 합창단 추모곡, 헌화 및 분향, 조총발사 및 묵념, 그리고 운암 김성숙선생 묘소 참배 순서로 진행된다.

추모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경근 서울보훈지청장, 함세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장, 이재명 성남시장,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독립운동가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또 부천 석왕사합창단, 역사어린이합창단, 국방부 군악대, 국방부 의장대가 참여해 추모공연을 펼친다.

한편,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세에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으로 있던 1919년 조선독립군 임시사무소 명의의 격문을 뿌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태허 스님은 조선의용대, 의열단 투쟁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에는 통일을 위해 헌신했으며 신민당 창당 주축으로 지도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1969년 4월 12일 서거했다. 정부는 태허 스님의 공훈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국가보훈처는 2008년 4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동련, 4월 16일부터 전국 연꽃문화제 개최

어린이 불자들의 그림과 글 경연인 전국연꽃문화제가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 청계사 주지)은 4월 16일 의왕 청계사에서 서울 · 경기 연꽃문화제를 시작으로 창원 구룡사 등에서 연꽃문화제를 진행한다. 연꽃문화제는 4월 22일 강릉 향기공원, 4월 29일 부산시민공원, 4월 30일 광주여자대학, 5월 3일 울산 정토사, 5월 13일 밀양 용궁사 등지에서 펼쳐진다.

참가대상은 5세부터 16세까지로 글짓기와 그리기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글짓기 분야는 운문과 산문 분야로 나뉘며 초등부 3~6학년이 참가한다. 그리기 분야는 크레파스와 유치부, 수채화는 초등부 및 중등부 경연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나의 소원' '생일' '선물' 으로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밖에 특별상으로 조계종 포교원장상이 수여된다.

개인 및 단체신청서는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며 6월 중 본상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015년 5월 16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올 3월 28일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4대 종교계는 세월호 참사해역서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16년 7월 8~11일 광화문 광장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 촉구 72시간 3만배 기도회를 봉행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9명 유해 수습 진정한 인양… "끝까지 함께 기도"

세월호 참사와 함께한 조계종 1085일의 기록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던 3월 23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동안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힘주어 외친 이들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다. 그들은 "세월호 인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양 완료"라며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3년간 줄곧 기다려왔던 세월호 인양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것은 아직 눈감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미수습자 9명 끝까지 포기 안 했다

길고도 긴 수학여행이었다. 2014년 봄,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찍은 예쁜 딸의 사진을 기다렸을 엄마의 핸드폰엔 배가 가라앉고 있단 믿을 수 없는 문자메시지가 전해졌다. '금방 돌아오겠지'라 생각하며 기다렸던 시간이 벌써 1085일이다.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수록 잊힐까 두려웠고, 배가 뭍으로 나와도 그 안에 내 가족이 없을까 무서웠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가 캄캄하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미수습자 9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조계종은 3년간 쉼 없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이 혹시나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9명을 잊을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이름을 외쳤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부에겐 여전히 지켜보고 있음을, 또 미수습자 가족들에겐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3월 28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서 "천일이 넘도록 내 딸을 찾아달란 말 밖에 안했다. 우리(미수습자 가족들)는 소수이다 보니 점점 소외됐고 그럴수록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조계종은 3년간 함께해줬다"면서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조계종이 미수습자를 찾아야한다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줬다. 내 가족과 다름없단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이 느껴져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그 후 불교계는…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 정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가 인양을 발표했지만 그 후에도 선수들기부터 선미들기까지 어느 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번번이 지연됐다. 그때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광화문으로 나갔다. 2016년 11월 25일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도법회', 7월 8~11일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 7월 4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5대종교 기자회견' 등을 열었다.

특히 2015년 5월 16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밖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인양 속개를 촉구하며 3차에 걸쳐 오체투지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발길은 팽목항으로도 향했다. 2015년 1월 29일~2월 14일 19박 20일 동안 진행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에 5박 6일간 합류했으며, 2014년 11월 29일엔 광주전남불교영산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하는 등 개별단체 및 사찰들의 추모 활동도 두드러졌다. 특히 사회노동위는 2017년 3월 17일과 1월 20일, 2016년 10월 20일, 8월 11일, 7월 20일엔 배를 타고 직접 참사 해역으로 나갔다.

박은미 씨는 "불교계에서 기도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를 주도해주셨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에 그쳤다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며 "종교는 다르지만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엔 조계종의 발 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고 당일 진도 향적사와 현지 상황을 공유한 후 그날 저녁 긴급구조대 선발대 파견을 결정, 이튿날인 17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원조에 나섰다. 또한 종정 진제 스님은 19일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선 불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가 봉행되기도 했다.

'세월호'와 함께한 조계종의 1085일

14.04.16. 세월호 사고 발생
04.17.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팽목항에 긴급구조대 급파
04.19.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팽목항 위로 방문
1500여 불자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발원 108배
04.29. 포교원, 세월호 실종자 극락왕생 발원 추모법회
05.06. 조계종, 팽목항서 봉축 법요식
05.20. 조계종, 조계사서 세월호 희생자 대규모 추모재
05.23. 조계종 노동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합류
06.03. 전국 사찰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일제 봉행
07.10. 자승 스님, '세월호 특별법' 지지 의사 표명
07.16. 조계종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무기한 단식 농성
07.24. 조계종,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
08.02.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3000배 봉행
09.01. 자승 스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긴급 호소문 발표
09.15. 조계종 종무원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단식
09.22.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입제
10.28. 노동위, 세월호 진상규명 72시간 철야 3000배
11.29.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위한 수륙재
12.29. 자승 스님, 세월호 자원봉사 스님들에 표창 수여
15.01.08. 조계종, 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초청 격려
03.26. 노동위, 세월호 인양촉구 오체투지
04.07. 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및 특별법 반대 단식 농성
04.14~16. 조계종,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법회
05.16. 진제·자승 스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방문
07.14.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1000배 기도
07.23. 노동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법회
09.09.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1차 오체투지
09.23.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2차 오체투지
16.03.17. 사회노동위,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인양 콘서트
04.14. 사회노동위, 팽목항서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
06.01. 자승 스님,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캠프 방문
07.08~11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3만배 기도
07.20. 사회노동위, 참사 해역서 인양 촉구 1차 기도법회
11.25.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법회
17.03.17. 사회노동위, 참사 해역서 인양 촉구 5차 기도법회
03.24. 조계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촉구 논평문 발표
03.26. 사회노동위, 미수습자 9명 수습 총력 촉구 성명문 발표



사회노동위 필두 3년 간 지속적 활동

사고 직후 팽목항 '긴급구호단' 급파

사노위, 광화문서 72시간 릴레이 기도

참사 해역서 인양촉구 기도 5차례

3년간 미수습자 가족 곁 지킨 양한웅 위원장

"꿈인 것 같습니다. 3월 22일 해양수산부가 '시험인양'을 한단 말에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 이렇게 쉽게 될 것을 왜 그리 안됐는지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3월 29일 며칠 만에 세월호 인양 현장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본지와 전화인터뷰서 3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3년간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며 미수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세월호 수색이 종결된 후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기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힘없는 자들을 위해 부처님이 아니면 누가 함께하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으로 미수습자들의 수습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며, 사회노동위는 그 사명으로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에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법당을 마련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 곳곳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1080여일을 견뎌온 미수습자 가족들과 사회노동위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폐허의 거리서 '위법망구' 정신 만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⑥ 폐허의 날란다 대학서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오현 스님의 '아득한 성자'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날란다 대학의 전경. 현재는 폐허가 됐지만, 전성기에는 대승불교 연구대학으로 국제적 명성을 가졌다. 동아시아에서도 현장, 혜초 등이 구법길에 올라 이곳서 수학했다.

폐허, 거대한 폐허, 폐허에도 거대함이 있는가. 날란다. 한 때 '인도 불교교학의 중심지' 혹은 '대승불교대학'이라고 주목을 끌었던 곳. 하지만 오늘의 날란다는 건물의 잔해만 남아 과거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 불경 읽는 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스쳐 지나갈 따름이다. 아니, 뜨거운 햇볕이 붉은 벽돌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폐허의 거리를 거닌다.

날란다는 인도 동북부 비하르에 위치해 있다. 마가다 왕국의 서울 왕사성(王舍城) 그러니까 오늘의 라즈기르와 가깝다. 생전의 붓다는 이곳 날란다에서 설법을 자주 베풀었다. 아니, 쿠시나가라의 열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도 날란다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 날란다는 거룩한 곳이었다. 그래서 폐허의 의미가 새삼스럽다.

날란다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 가운데 아쇼카 왕을 비롯 나가르주나와 같은 사상가도 있다. 오늘의 유적은 6세기 이후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날란다는 6세기 무렵 불교연구 센터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같은 명성은 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12세기 이슬람의 침략으로 사양길에 들어섰다.

전성기는 당 나라와 신라의 구법승들도 끊이지 않고 찾아와 불교를 연구했다. 그리고 폐허, 오늘의 모습은 20세기 전반 고고학적 발굴 작업에 의한 결과이다. 현재 확인된 건물 터는 사당(祠堂) 6군데, 승방(僧房) 11군데 등 17군데이다. 발굴 당시 발견된 유물은 부근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현장 법사는 그의 인도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날란다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우선 날란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날란다는 신왕사성 북쪽 30여리에 있다고 했다. 가람 남쪽 숲속의 연못에 용이 살고 있는데, 용의 이름이 날란다라고 했다. 그래서 용의 이름을 따 절 이름을 지었다는 것. 하지만 여래가 보살행을 닦을 때 이곳에 도읍을 세우고 중생을 살폈는바, 왕의 덕을 찬미하여 가람 이름을 왕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다.

붓다 재세 시에는 상인 5백 명이 10억의 돈을 보시했고, 붓다는 이곳에서 3개월간 설법했다고 했다. 붓다 열반 이후 한 점쟁이가 예언하기를, "이곳은 훌륭한 고장이다. 가람을 세우면 반드시 성대하게 되어 인도의 모범으로 천년을 지나도 오히려 번창할 것이다. 후진 학자들은 이곳에 오면 학업의 성취에 이익이 될 것이다. 다만 피를 토하는 자가 많겠는데 이는 용을 해친 때문이다"고 했다. 현장법사의 날란다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면서도 흥미롭다. 그만큼 날란다의 의의에 대하여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이렇게 이어진다.

"승도는 수천 명인데 모두 재능이 높고 학식이 있다. 덕행이 당대에 존중을 받고 명성이 외국에까지 뻗치고 있는 사람만도 수백 명이다. 계행도 청결하고 수칙도 순수하다. 승도에게는 엄한 규제가 있고 사람들이 이를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제국에서 모범으로 우러르고 있다. 교의(敎義)를 연구함에 있어 날을 다하고도 오히려 부족해 하며 아침저녁으로 서로 훈계하는 가운데 젊은이나 연장자나 서로서로 돕고 있다. 만약 삼장의 유현한 취지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경(異境)의 학자로서 성예(聲譽)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유학했다고 허위사실로 말하며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해도 어디서고 정중한 예우를 받는다."

날란다 대학의 학승 숫자만 해도 수천 명, 엄청난 규모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웬만한 대학 규모와 비슷하다. 문제는 재학생의 숫자가 아니다. 수천 명 가운데 학식과 덕행을 갖춘 거목도 수백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날란다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印 동북부 위치한 날란다 유적
국제적 불교교육 · 연구처 '명성'
혜초 · 현장 등 동아시아 구법승
목숨 걸고 求法유학, 공부 매진

12세기 이슬람 침략으로 폐허
인류유산 파괴 이해 못할 행위

당시에도 가짜학생들이 많았나 보다. 날란다대학을 팔면 어디서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일이다. 일류대학 사칭의 역사는 이렇듯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니!

의정(義淨)은 날란다에서 10년간 공부한 구법승이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날란다의 승도 숫자는 3천여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하여 승방은 8군데로 방은 3백여 개나 된다고 했다. 엄청난 규모를 일러주고 있다. 때문에 날란다의 승원은 3층 구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10년 유학이라. 이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10년 동안 연구할 만큼 날란다는 시설과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날란다의 마당을 거닐어 본다. 신라에서 온 학승의 모습도 그려본다.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는 인도 여행기를 남긴 신라의 혜초 스님을 그려본다. 신라에서 멀고도 먼 이국에 온 이유, 오로지 구법, 그 한가지의 사실이 아닌가. 목숨을 걸고 온 길. 오늘의 인도여행도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옛날의 사정은 얼마나 가시밭길이었을까.

신라는 인도문화를 직수입하는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오늘의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기록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책 한 권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나마 돈황 막고굴 석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혜초의 기행문 때문에 일말의 안도감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폐허의 날란다를 거닐면서 많은 상념에 빠져야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옆으로 길게 도열해 있는 승방 터, 크게 8개 정도의 사각 건물이다. 이들 뒤로 간격을 두고 사당 자리가 있다. 대규모의 기초를 남겨 전성기의 위용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 건물 유적 가운데 눈길을 강하게 끄는 곳은 제3사당이다. 현재의 건물 높이만 해도 31m 정도이다. 꼭대기에 불상을 봉안했을 터인데, 현재는 없다.

불상이 없어서 그럴까, 무너지다만 붉은 벽돌의 건축이어서 그럴까, 붉은 벽돌이 안기는 의미는 자못 숙연하게 한다. 제3승방 터의 한 가운데 커다란 스투파가 있다. 7개의 층위 가운데 5층은 굽타양식(6세기 말~7세기 초)의 소조불상이 발견된 곳이다. 소조상을 봉안했을 벽감은 현재 40여 군데로 헤아려진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 벽감에 남아 있는 불상들을 보면서 과거의 영화를 생각해 본다.

날란다에서 발견된 불상은 많다. 그 가운데 나의 눈길을 오랫동안 묶어 둔 걸작은 '석조 문수보살입상(6세기, 뉴델리국립박물관 소장)'이다. 제1승방지에서 출토된 이 작품은 늘씬한 몸매에 부드러운 세련미를 자랑하고 있다. 허리가 잘록하고 몸은 약간 비튼 것처럼 운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왼손은 어깨 쪽으로 들어 연꽃을 들고 있고, 오른 손은 무릎 아래로 늘어트려 손바닥을 보이고 있다. 얼굴은 엷은 미소를 머금은 듯 어여쁜 자태에 머리 장식이 화사하다. 세 갈래의 머리 매듭과 화려한 목걸이는 나신의 상체에 변화감을 준다. 상체의 단순미와 비교하여 하체의 복잡한 구성은 상호 비교하게 한다. 아름다운 문수보살, 이런 작품이 날란다에 있었다니,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인도미술의 찬란함에 대하여 감탄사를 준비하게 한다.

"인도 불교미술의 고전시대는 굽타시대(320~550년경, 미술사적으로는 750년경까지)에 도래하였다. 갠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등장한 강성한 제국인 굽타 왕조는 궁정과 큰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문학과 음악, 미술이 모두 번성했는데, 특히 미술은 인도의 수준으로 볼 때 하나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전개되어 온 발전이 절정기를 맞으면서, 그렇게 완성된 형태는 고전적인 모델로서 아시아의 광대한 여러 지역에 파급되었다. 굽타 왕조는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불교 안에서도 소승불교도들이 대승불교도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였다. 대승불교가 이 시대에 유신론(有神論)적인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숭배되는 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복잡한 주술 의례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불교의 힌두화 과정으로 귀결되었는데, 힌두교의 시바 숭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북인도에서 불교의 종말을 가져왔다. 8세기에 시작된 이 과정은 불교가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인해 절멸되는 12세기까지 진행되었다."

– 디트리히 제켈, 〈불교미술〉 中

신라 미술의 절정은 8세기에 도달했다. 토함산 석굴암이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 불교의 화려한 만개, 그리고 굽타시대의 절정, 8세기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이루고 12세기까지 하락의 길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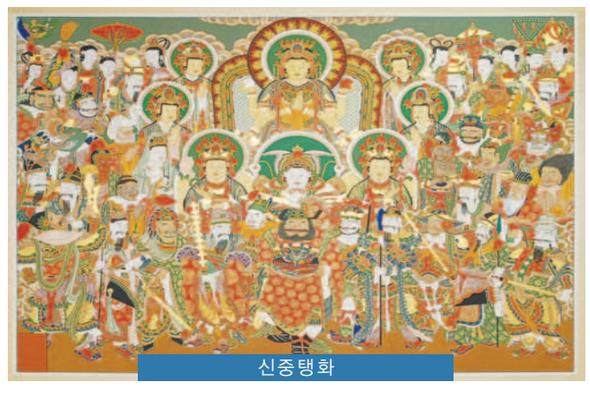
이슬람의 침입은 결정타였다.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의 교리는 많은 미술품을 파괴하게 했다. 중국 베제클릭 석굴사원의 파괴된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도처에서 이슬람의 만행을 볼 수 있다. 근래 바미얀 석불의 파괴 행위에서 전 세계인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종교의 차원을 떠나 인류문화 유산을 그렇게 쉽게 파괴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아무리 성주괴공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경우가 있는 것이다. 날란다를 거닌다. 붉은 벽돌의 건물 터 사이를 거닐면서 폐허의 의미를 음미한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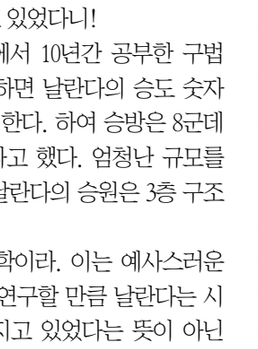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韓 · 中학자, '원효'에 주목하다

동국대 · 인민대 등 '원효와 동아시아' 세미나

원효 著 삼매경론 유통사부터
징관과 관계 · 일념사상 연원까지
원효 저술 · 사상 등 영향력 조명
5, 6월 韓 · 日서 세미나 이어져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학자들이 참여해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과 중국 인민대학, 민족대는 3월 24~25일 인민대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이 신라와 중국 불교에 미쳤던 영향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천학 동국대 교수는 '원효 〈금강삼매경론〉(이하 〈삼매경론〉)의 동양시아 전파'에서 원효 스님의 저술한 〈삼매경론〉이 한 · 중 · 일 삼국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추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삼매경론〉은 원효 스님이 저술했지만, 의천의 목록과 1244년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743~768년 26회의 필사 기록이 확인된다.

〈삼매경록〉이 이른 시기 인용되는 곳은 중국이다. 특히 종밀은 〈원각경〉 관련 저술에서 원효의 〈삼매경론〉을 다수 인용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원각경〉 주석 상의 관심이 교선일치 및 남북선종의 종합적 형태를 찾으려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무상법'에 대한 해명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매경론〉의 중국 전파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신라 도륜의 〈유가론기〉 인용을 인정한다면 8세기 초 전래됐을 것"이라며 "〈송고승전〉의 설화를 믿는다면 원효의 〈삼매경론〉을 통해 〈금강삼매경〉이 중국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웬량(張文良) 중국 인민대 교수는 '신라의 원효와 청량 징관'을 통해 중국 화엄종 4조 징관 스님이 원효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폈다.

장 교수는 "징관의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의 이해에 있어 원효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징관은 원효의 저작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상 전개의 계기와 근거로 삼았다"며 "원효의 사상은 징관이 자신의 화엄사상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해서 참고 · 수용했던 중요한 사상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리우청요우(劉成有) 중앙민족대 교수는 '원효의 일념사상설과 그 연원'을 통해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일념사상의 연원을 고찰했다.

리우 교수는 "원효의 일념사상은 〈대승기신론〉에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으며, 당시 시대의 소(疏)와 소해(疏解)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원효만의 해석적 특징은 존재한다"면서 "원효의 해석에는 신역유식과 구역유식을 '화쟁' 하려한 적극적 시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대승불교의 도덕론- 원효의 죄와 참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와 장쉐송(張雪松) 중국 인민대학 부교수의 '원효 율학 사상의 기초적 검토' 등이 발표됐으며, 김종욱 원장과 김영진 동국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단은 5, 6월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서 국제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특히 5월 동국대가 주최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주의 학술대회에는 14명의 국 · 내외 석학들이 원효 스님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양철학자 눈으로 본 선불교

재독 학자 한병철 교수 〈선불교의 철학〉 번역서 발간



헤겔 · 니체 등 서양철학 이론과
임제 · 동산 등 선사들 통찰 비교

〈피로사회〉로 잘 알려진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선불교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저서가 발간됐다.

한 교수는 저서 〈선불교의 철학〉에서 서양철학자의 관점을 통해 선불교를 비교 · 고찰하고 있다. 기실 선불교의 핵심은 흔히 말과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승된다는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인간의 마음을 직접 인도하고 고유한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로 표현된다.

선(禪)은 논리,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이론과 담론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교수는 "좁은 의미의 철학에 속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도 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선불교에 '관해서' 그리고 선불교와 '함께' 철학함으로서 '선불교의 철학'을 조명한다.

그는 플라톤, 라이프니츠, 헤겔, 니체, 쇼펜하우어 등 서양철학자들의 이론과 임제, 도오, 동산, 위산, 앙산, 운문, 원오, 도겐 등의 선사들의 수행적 통찰들을 비교하며 선불교가 가지는 사유의 면모를 찾아내고 있다.

한 교수는 책에서 선불교를 무, 공, 무아, 무주, 죽음, 자비 등 6가지 주제로 나눠 서양철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선불교와 비교한다.

실제, 헤겔은 종교의 대상을 '신'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은 '실체'이면서 '주체'이지만, 불교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무'는 배타적 주체성이 없다고 한 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선불교의 무는 신적인 '저기'를 향하지 않고, 내재성으로, 즉 '여기'로 향한다"며 "'무'는 중심적 주체가 아니라 비어 있는 중심이며, 지배하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주변도 없고, 존재자 모두가 중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선불교는 다른 세계가 아닌 일상에 머물며, 깨달음은 일상, 즉 평범한 세계에서 깨어남을 강조하고 있음을 역설한 한 교수는 "깨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저기'가 아닌 '아주 오래된 여기'에, 깊은 내재성에 도달한다"면서 "선불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신뢰하는 세계종교"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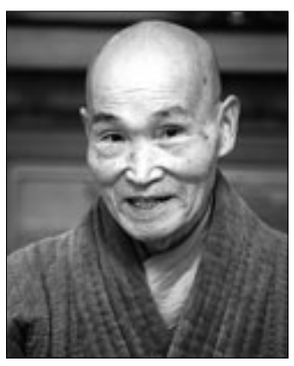
책을 따라 가다보면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사유가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유의 전통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동서양의 사유의 전통을 비교하며 선불교의 통찰을 만날 수 있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의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선지식 수행 · 사상 조명 잇달아

용성 스님- 대각사상연구원 4월 7일 세미나
청화 스님- 청화사상연구회 4월 9일 세미나


용성 스님


청화 스님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과 청화 스님의 사상과 수행 면모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린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평택 명법사가 주최 단체로 참여하는 이날 세미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며, 총서의 발간 경위와 성격을 살펴보고, 백용성 사상의 개요를 심도있게 재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백용성 사상 계승에 헌신하고 있는 명법사 화정스님과 대각사상연구원이 뜻을 같이하여 개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는 도문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죽림정사 조실)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5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로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 및 성격(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백용성의 화엄과 선(이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 백용성의 공사상(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 백용성과 여성 수행(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이뤄진다.

발제자들은 근대불교 시대에 불교의 쇠퇴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고자 고뇌하였던 백용성 스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신해 스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은 "대각사상연구원은 백용성 스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님의 역사적 위업이 현 세대에 잘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 이하 연구회)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과 다른 제반 수행법을 비교 · 고찰하는 학술세미나를 4월 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한다.

'염불선과 제 수행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의 '염불선과 염불' △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염불선과 묵조선 · 간화선'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염불선과 사마타 · 위빠사나'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동국대 외래교수 신해 스님,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손병욱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참석한다.

연구회 측은 세미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불교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염불선과 다른 제 수행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수행풍토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하는 법상 스님은 "청화 선사는 간화선 이외는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염불과 초기, 부파, 대승의 선정도 최상승선이며, 궁극의 경지와 일치한다는 점을 경론을 통해 입증했다"며 "염불과 선 수행이 바로 불심(佛心)이고 선심(禪心)이며 염심(念心)"이라고 강조했다.

청화 스님의 재가제자인 배광식 前 서울대 치대 교수는 "염불선과 제 수행법은 외견 상 다른 수행법으로 여겨지는 점도 없지 않고, 실제 차이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행복이나 궁극적 지향점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 세계 유산 인문 강좌 '눈길'

공주博, 3~11월 강좌 실시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성인 대상에 '박물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를 3월부터 11월까지 개설 운영한다.

'한국의 불교미술과 세계유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연속 강좌는 3월 29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불교미술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에는 △가톨릭 총본산 바티칸 시국을 가다(김용법 KBS2TV 감독) △불교조각(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힌두교 예술, 앙코르와트(임헌갑 소설가) △불교공예(최응천 동국대 교수) △이슬람 예술, 알람브라궁전(이형준 사진작가) △불교건축(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석굴사원(민병훈 미술사학자) △불교회화(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 4월부터 11월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 참여는 국립공주박물관 누리집 접수 및 당일 현장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강좌에 대해 국립공주박물관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종교에 대한 인류의 예술적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가격 : 18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은 누구나 익히 알고있는 〈금강경〉의 유명한 경구(經句)이다. '마땅히 머문바 없이(應無所住) 그 생각을 낼지어다(而生其心)'로 쉽게 해석하나 결코 쉽지 않는 구절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눈·귀·코·입·몸·뜻을 통해 색깔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 분별에 이르며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의 주체가 육식계(六識界)인데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이 그것이다. 하여,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과 더불어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는 팔만대장경의 거듭되는 가르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되돌아가 살펴보자. 글자의 배열 순서대로 '마땅히 머문바 없이(應無所住) 그 생각을 낼지어다(而生其心)'로 해석해 받아들인다면 이는 다수의 중생을 위한 경구(經句)가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보살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생각 머물지 않으면 자유 온다
걸림없는 '허공여래'로 살아가길

누구나 마음을 모아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보자. 순간과 찰라 지간에 마누라, 남편이 지나가고 별의별 생각이 스쳐 정신통일이 쉽지 않을 터이다. 좌선하는 동안만이라도 일상생활의 번뇌망상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습관의 고리, 생각의 이어짐은 예고도 준비도 없이 날아들 터이다.

일부러 불러들인 생각일리 없지만 마음은 분주하게 팔만사천의 잡티 같은 생각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순간이라도 나의 의식의 세계에 머문바 있는 생각들이 번뇌 망상으로 얽혀 부르지 안했는데도 좌선하는 자의 머릿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모든 불자(佛子)들의 생활의 실천덕목이지만 거룩한 뜻에 비해 행동의 현 주소는 대개가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듯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내어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실천하고 싶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터이다.

중생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은 대개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아집(我執)과 소유욕은 지나칠수록 병을 키우고 화(禍)를 부르는 법이다. 하여, 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생활을 일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으뜸의 생활 덕목이 되어야 한다.

복잡보다는 단순하게,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으로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 비우고 버리며 놓아버리는 무소유(無所有)의 개운한 삶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바른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순서를 바꾸어 해석해보자.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而生其心) 마땅히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應無所住)'

좋은 생각이던 나쁜 생각이던 그 생각에 오래 머물면 병이 된다. 어떤 집착이던 집착은 근심의 원인이 되어 병을 키우기 때문이다.

복잡다변의 논리보다 순수와 진솔함이 깃든 어눌한 단순논리가 더욱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어둠사이에서 방황하며 별의별 일도 겪게 된다. 천만가지 생각의 윤회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생활의 지혜를 길들여야한다. 생각에 오래 머물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정제되지 않은 행동은 재앙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생각에 머물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그 한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 행복과 자유를 누릴 터이다.

〈열반경〉에는 허공여래가 등장한다. 시방세계(十方世界)에 머묾이 없는 빛줄기 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하여, 열반(涅槃)을 무상(無相)이라 칭하고 있다. 열반에는 이런 상(相)이 없는 것이다. 상(相)에 집착하면 어리석음이 생겨 흔들리거나 헐떡이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열반경〉에는 열반의 삼덕(三德)이 등장하는데 법신(法身)과 반야(般若), 해탈(解脫)이 그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한 생각에 머물지 않아 지혜의 등불로 자유를 만끽하며 걸림이 없는 허공여래로 살 일이다.

무분별 경지로 법안종 선법 펼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법안종(法眼宗)은 법안 문익(法眼文益:885~958) 선사에 의해 창시된 중국 선종 5종의 하나로 육조 문하의 청원행사 계통으로 법맥이 계승된 종파다. 문익 선사는 오대(五代) 때의 사람으로 처음 출가하여 전위(全偉) 선사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된 후 다시 비구계를 받고 제방으로 행각을 하다가 장경혜릉(長慶慧稜) 선사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선법을 공부했다.

그가 깨달음은 얻게 된 계기는 나한계침(羅漢桂琛)을 만난 인연으로 얻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 번은 문익 선사가 호상(湖湘)으로 행각을 갔다가 폭풍을 만나 지장원(地藏院)으로 피신해 있다가 계침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계침 스님이 물었다.

"어디로 행각을 다니는가?"

"이곳저곳 아무데나 다닙니다."

"행각하는 일은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모른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네."

'모른다는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 문익 선사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하며 뭔가 크게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이른바 '도는 아는데도 속하지 아니 하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道不屬知不知)'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이 막혀 알음알이가 끊어진 경계를 두고 한 말이다.

알고 모르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다. '모른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다'는 계침 스님이 해준 말, 여기서 나중에 '부지친절(不知親切)'이란 말이 생겨 하나의 공안(公案)이 되었다. '도와 가장 친절한 것이 모르는 것'이다. 이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설화〉에 나오는 말이다.

〈법안어록〉에는 계침 스님과 문익 선사가 나눈 대화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문익 선사가 지장원을 떠나던 날 인사를 올리자 계침 스님이 절문 밖까지 전송을 나오면서 마침 뜰에 있는 돌을 가리키면서 "상좌여, 삼계(三界)가 오로지 마음뿐이며, 만법은 식(識)일뿐이라고 말하는데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말해 보게나"고 말했다. 그러자 문익 선사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계침 스님이 "다시 수행하는 사람이 어째서 돌덩이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문익 선사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할 수가 없자 떠나려던 걸음을 멈추고 곧바로 짐을 풀고 머물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다. 한 달여가 지나고 문익 선사가 계침 스님에게 자신을 견해를 말씀 드리자 계침 스님이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라고 하였다. 문익 선사가 다시 "저는 말이 막히고 도리도 끊어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계침 스님이 또 "불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은 눈앞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익 선사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계침 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다. 그런 다음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 임천(臨川: 四川省)에 이르렀을 때 고을의 주목(州牧) 청에 따라 숭수원(崇壽院)에서 개당(開堂)하였는데 사방에서 수많은 학인들이 법문을 들으러 와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한다.

그 외 문익 선사가 머문 곳은 보은선원(報恩禪院), 청량대도량(淸凉大道場)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려 광종 때 법안 문익 문하에 들어가 참학한 스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일본에서도 문익 선사를 찾아와 선법을 배운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 중에 천태덕소(天台德韶)와 청량태흠(淸凉泰欽)이 유명하며 법을 이은 제자가 60여 명이 된다.

〈법안문익선사어록〉은 문익 선사가 주석했던 숭수원, 보은선원, 청량선원 등 세 곳에서 행한 법문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오가어록〉의 다섯 번째 들어 있다. 그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게송이 〈종용록(從容錄)〉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 공부가 충분히 되었어도 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주 작은 터럭조차 벗어버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렀네. 짧거나 길거나 자르지도 말고 잇지도 말며, 높거나 낮거나 스스로 평등하게 다스려라. 가문을 넉넉하게 만들거나 검소하게 만들 되 때에 따라 수용하고 어느 길에서나 한가하게 노닐며 발 가는대로 옮겨라. 삼십년 전에 행각했던 일이여, 분명히 한 쌍의 눈썹을 몰랐었노라."

(而今參飽似當時 脫盡廉纖到不知 任短任長休剪綴 隨高隨下自平治 家門豊儉臨時用 田地優遊信步移 三十年前行脚事 分明辜負一雙眉)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⑭ 선현기청분 2

時 長老 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시 장로 수보리 재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希有世尊.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阿 F
(희유세존 여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아뇩)

多羅三 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다라삼먁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불언 선재선재 수보리 여여소설)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 善女人 發阿
(여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아)

耨多羅三 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 世尊 願樂欲聞
(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 세존 원요욕문)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아는 제자입니다. 그런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을 우러러 합장하여 공경하는 것은, 일체의 생각과 행위가 마음이고,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라는 깨달음을 일러주신 부처님께 공경의 뜻을 표하는 한편, 부처님에게 사뢰는 것은 부처님의 깊고 깊은 지혜의 참뜻을 생사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모든 중생들에게 알리고자 다시 사뢰어 묻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녀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선남자(善男子)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 대립하지 않는 마음, 양변을 여읜 마음, 평탄한 마음인 평상심으로 장애가 없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항하사 같은 공덕을 성취한 마음입니다.

선여인은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지혜와 공덕이 나타남을 가르키는 것으로 마음작용이 됩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여의면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킨 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또 분별망념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그 분별망념을 항복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또한 분별망념이 일어날 때는 분별망념이 마음이고 마음이 분별망념임을 깨달아 안다면 분별망념을 항복받는 것이다 고 하신 것입니다.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요!

기도가 쉽고 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나는 기도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3,000일 동안 본회 법당에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신도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천도재는 그동안 많이 지내드렸는데, 아직도 조상영가님 들의 천도재는 계속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원인을 밝혀서 간략하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연락주시는대로 불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가들은 천도재를 완벽하게 해드렸다고 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염원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영가들이 원하는 일정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강한 파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파장은 영가 장애이상으로 사업이나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자손들이 잘 풀려 나가지 않는 여러가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① 1차로 1,000일 기도를 마치면 :
영가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수직 상승하여 우리 집안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호법신장이 되는 초입단계까지 갑니다.

② 2차로 2,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호법신장이 되어 우리 집안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③ 3차로 3,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영가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법공양 영가특별천도재 3,000일 기도에 입재하는 것입니다.

■기도비
100일 기도비는 10만원이며, 100일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모두 삼백만원이면 됩니다.
먼저, 100일 기도 신청비를 보내시면 보내시는 날짜가 신도님 각각의 3,000일 기도 입재일이 됩니다.

◇본회 방문 환영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원각사 주변, 발파 작업에 대웅전 '흔들'

주지 반산 스님, 3월 29일 기자 간담회서 호소

수행도량이자 통도사 말사인 원각사(주지 반산)가 수행 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원각사가 위치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양산시와 태영건설이 민관합동으로 개발 중인 '석계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웅전 바로 위 10m 거리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각사는 "도로공사로 인해 사찰 역할이 완전 마비 됐지만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3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공장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도 주변 환경이 삭막해지고 경관이 훼손돼 안타깝다. 또한 처음 설명들은 공사 계획과 달리 대웅전 위에 바로 도로가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산 스님은 공사 진행 전 시공사인 (주)석계산업단지가 설명한 사실과 공사 진행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주)석계산업단지는 공사 전에는 사찰과 도로 간 거리가 100m 가량 떨어져 사찰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웅전 바로 위 10m 높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루 12번도 넘는 발파 작업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힐링을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원각사가 석계산업단지 조성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주지 반산 스님은 사찰 위 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피해 여부를 설명 중이다.

양산시 · 태영건설 '석계산업단지'
대웅전 바로 위 10m 도로 공사 추진

반산 스님 "공사 전 설명과 달라"
잦은 발파로 인해 사찰 기능 마비
"이주 혹은 대토 보상 강력 요구"
산업단지측 "이미 조치 취해"

스님은 아울러 "사찰에 금이 가는 것은 예사고, 천장에 붙어 있던 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흔들림이 심하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스님에 따르면 양산시는 석계리 산7번지 일대를 2009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참여 신청했으나 실패, 이후 2011년 한국전지연구원, 고성능 모터기술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명박 前 대통령 정부 당시 양산시는 이 지역을 국가 산업단지인 의료복합단지로 추진했다. 의료복합단지인 경우는 일반 공업 단지 보다 공해도 없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양산시는 유치에 실패했다. 그 후 앞선 공사 계획 수준에 맞는 긍정적인 개발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금 석계리에 들어설 공장들은 고무, 플라스틱 등 화학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며 "이것은 명백히 개발을 위한 개발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난개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스님은 "천성산은 1000명의 성인이 출현했다고 해 천성산이라고 불린다. 원각사는 산 너머 3km 지점에 내원사와 화엄늪이 위치하며 원효대사의 성스러운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양산지역불교 성지요 수행처"라며 "양산시와 태영건설 그리고 (주)석계산업단지는 최대한 피해보상에 임하고 우리 원각사가 사찰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반산 스님은 양산시에 공사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항변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영 (주)석계산업단지 사업부장은 공사 시작 전 공지한 내용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상이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다.

김홍영 부장은 "현재 원각사 위에 공사 중인 도로는 35번 국도를 잇는 길로 원각사와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공사는 진행되면 성토하고 절토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성토 부분 때문에 원각사가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파로 인해 금이 간 것은 이미 방문 조사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미래 법조인 불자, 신입생 환영 법회 개최

총 65명의 새내기 불자 회원 가입



로스쿨 불교 동아리 법륜회(회장 임태량 · 부산대)와 법등회(회장 승성원 · 동아대)는 3월 25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신입생 환영 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미래 불자 법조인으로 활동할 법륜회 · 법등회 회원들은 새내기 신입 회원 65명의 가입을 축하하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 법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목종 스님과 공병수 부산불교거사림 회장, 정승윤 부산대 법륜회 지도 교수 및 회원 1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공병수 회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법륜회와 법등회에 법회를 소개하고 템플스테이를 함께 준비하는 등 여러 활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공병수 회장은 임태량 법륜회 회장과 법등회 승성원 회장을 비롯해 모범불자 1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공 회장은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은 기적"이라며 "불퇴전의 마음으로 잘 수행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시험 합격의 비결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며 "먼저 마음을 내고 자신을 바로 알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한다. 이어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문했다.

법륜회와 법등회는 매달 한 달에 2번 부산불교거사림에서 개최하는 법회에 참석하고 템플스테이 및 동아리 활동으로 불교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영주암, 25년 간 효자 사찰 노릇 '톡톡'

제25회 영주암 효도큰잔치 개최



부산 영주암(주지 범산)이 지역 어르신의 효자 역할을 25년간 담당하고 있어 화제다.

영주암은 3월 28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25회 영주암 효도큰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영주암은 매년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3월이 되면 어김없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공식 잔치 날로 정해져 있는 효도큰잔치 때문이다. 이번 효도큰잔치에서 어르신들은 직접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해 주인공이 되고 초대 가수의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어깨춤을 췄다. 영주암은 효도 잔치를 위해 과일과 떡 식혜 등 잔치 음식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아울러 경품과 기념 선물도 선사했다.

효도큰잔치에는 박현욱 수영구청장을 비롯해 김정수 구의장, 김덕수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보살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주지 범산 스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 모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정말 신나게 즐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화엄승가회 창립 2주년, 자비나눔 실천

부산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화엄승가회는 3월 27일 부산 양정동 라메르뷔페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화엄 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 중 출가한 스님이 60여명에 이른다. 그 스님들이 주축으로 300여명의 스님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전국 불교대학 중 최초로 구성된 동문 승가 모임이다.

화엄승가회는 이날 모교인 부산불교교육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부산대와 동아대, 부산해양대, 부경대, 동의공대 등 불교 동아리에도 지원금을 지원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자살예방과 교통질서 캠페인 그리고 연탄나누기 등 여러 활동을 이어 올 수 있던 건 어려운 사중 살림 속에서도 우리 회원 스님들이 참여해준 결과이고 공덕"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 창원, 봉축 연등 축제 준비 완료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울산 태화강 둔치서 4월 21~23일
창원시불교연합회, 창원 마산항 제1부두서 4월 28일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울산과 창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가 마련된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남현)는 '2017년 태화강 연등 축제'를 4월 21~23일 남구 태화강 둔치(舊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한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여는 이번 태화강 연등 축제는 첫째 날인 21일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연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점등불 꽃놀이가 마련돼 화려하게 시작한다. 아울러 행복 바라미 행사, 이웃종교합창제, 낙화놀이, 불교우수상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 22일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봉축 법요식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발우공양 체험, 무차만발공양, 부처님이운행렬,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3일은 시민한마음축제로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그 외 발우공양체험, 떡 나누기, 무차만발공양,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다.

제등행렬 코스는 태화강둔치에서 출발해 시청, 달동 롯데마트사거리, 공업탑로터리, 울산대공원 동문광장까지 이어져 총 2.7km이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남현 스님은 "연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 종단의 스님들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성장하는 울산불교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창원시 연등 축제'를 봉행한다. 연합봉축법요식은 4월 28일 오후 7시 마산항 제1부두(가고파국화축제장)에서 개최된다.

법요식에 이어 8시에는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를 연다. 출연가수 홍경민, 홍진영, 설운도, 신유, 서지오가 화려한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연등축제에 앞서 창원시불교연합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창원시 다문화 한마당축제'를 진해 중원로터리 광장 중원쉼터에서 개최한다.

다문화체험 문화마당이 마련되며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한다. 법요식 및 봉축탑 점등, 제등행렬도 열릴 예정이며 장학금 전달로 자비나눔도 실천한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2017 주요 사업 확정

3월 28일 정기총회서 4개 분야 주요사업 20개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 사진)는 3월 28일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불교수행 △포교 △불교연구 △문화 등 4개 분야 20여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롭게 시민공원에서 열릴 연등축제에 대해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사찰순례와 부산불교합창제, 자비 나눔, 대학생 불교 동아리 지원에 더욱 앞장선다. 또한 〈부산불교100년사〉 제작을 지원해 불교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팔관회에도 적극 동참한다.

하성미 기자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 외곽용 26E | ISO9001 | ISO1400 | 전선플러그 |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밥 한 끼에도 감사함 담아”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지도법사 지원 스님

남도사찰서는 벌써 매화가 지고,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면 완연한 봄날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철 음식이 가장 풍성하다는 봄날, 3월 25일 광주에 있는 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레스토랑’이 한창이었다.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은 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사찰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설립한 공간으로 이날은 어린이레스토링이 열린 이날은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한 지도법사 스님이 눈에 띄었다. 광주 주월동에 있는 연화사 주지 지원 스님<사진>이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식구들과 함께 멋진 외식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레스토랑은 꿈 많은 아이들이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원 스님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삶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현대 사회인들에게 불교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끝없이 고민을 하면서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를 찾게 됐어요. 배우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때가 2015년 12월인데 이제 1년 반 정도 돼 가네요.”



지원 스님은 출가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뇌’로 출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쉼 없이 정진했다. 출가 후 25년이 흘러 출가자의 삶이 세상과 등진 삶이 아니라 ‘속세와 함께 하는 현실적인 삶’임을 깨달았다. 이런 스님에게 어린이레스토랑은 힘든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다.

어린이레스토랑 준비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사 2~3일 전 봉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메뉴를 선정한다. 뜻있는 이들의 좋은 식재료 후원과 장보기를 마치면, 레스토랑 여는 날은 바빠진다. 오전 10시 가벼운 티타임과 봉사자들과의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음식준비에 들어간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은 모두 베테랑이다. 적게는 6개월, 많게는 4~5년차인 봉사자들은 손발이 잘 맞아 조화롭게 일을 나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었다.

‘어린이 레스토랑’ 정기봉사
아이들에게 희망주기 위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요”

메뉴는 먹기 편한 엄마표 탕수육과 자장면이다. 매번 40~80여 명의 가족이 찾는 어린이레스토랑은 식사시간만 되면 왁자지껄하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어른들의 행복한 웃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음식은 생명의 연장이자 가장 즐거운 만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이곳에서 외식을 하듯 가족과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추억을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만면에 웃음꽃을 피운 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보내며 스님은 이곳에서의 하루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지원 스님은 광주 남구에 있는 연화사 주지로서 사찰서 운영하는 ‘아이온 유치원’ 원장이다.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이곳 어린이레스토랑에서 봉사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참여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듯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이곳에 와서 내 스스로 힘을 얻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스님 수행생활, 지역불교가 돕는다

빛고을나눔나무, 5월 중 승보공양 계획

경제형편 어려운 스님 대상
4월 사전방문 지원내역 협의
종단 무관, 속가 의탁 없어야
모연 통해 지속사업으로 확대

최근 불교계서 승려노후복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3월 22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호남지역 출가수행자를 위한 승보공양’ 모연 프로그램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게재하고, 스님들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승보공양 홍보대사를 자처한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은 “호남지역의 열악한 불교환경과 더불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스님들이 큰 병환에 들거나 대중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곤궁한 삶을 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 속가 식구들에게 의탁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며 “모연 동참과 함께 5월초에 승보공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빛고을나눔나무에 따르면 노스님 지원은 4월 사전방문을 통해 지원내역을 협의한 후 현물, 생활시설 보수 등으로 1회에 한정하지 않고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차 지원은 1000여만 원의 승보공양 기금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속가 가족에게 의탁하지 않는 독신 출가자를 우선으로 소속 종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도계 스님은 “청정한 출가 수행자란 평생 오로지 수행만을 위해 최소한의 소유만을 미덕으로 알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분을 말한다. 한국불교는 무소유의 가치를 으뜸으로 알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 하지만 소박하고 청빈한 삶으로 평생을 수행해 오신 일부 스님들의 노후는 많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고 모연 취지를 설명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전남지역 출가수행자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는 불교 전통을 살리고, 수행에 필요한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승보공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필품과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의 끝자락을 올곧은 출가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스님들을 돕고자 홍보대사 도계 스님이 라디오방송 등서 모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올해 기금 1000만원과 3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모연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홍보방법에 있어 동영상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2014년 11월 창립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붓다의 선물’ 나눔경매, 2015년 네팔지진피해주민돕기 공동모금(광주지역 불교단체) 9600만원을 지진피해 지역 학교재건 등에 지원, 미얀마 홍수피해 주민돕기에 기금전달, 2015년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 실무자를 위한 ‘빛고을 모연(모금) 아카데미’ 개최, 2016년 네팔 룸비니지역 어린이를 위한 ‘행복자전거’ 100대(1000만원 상당) 전달 등 다양한 자비나눔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14년부터 3년간 지역최초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2014년 1500만원, 2015년 1300만원, 2016년 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750만원을 책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석전 스님 유지 이어 불교발전을”

고창 선운사, 3월 26일 석전 스님 69주기 추모

일제강점기 근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영호당 정호대종사 69주기 추모재가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3월 26일 정호대종사 69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조사전,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상단 불공에 이어 분향, 사부대중 3배, 정호대종사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는 문중원로 재곤 스님, 재덕 · 법현 · 범여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스님들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 금강사 혜성 스님, 본말사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석전 스님 유지를 이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스님들이 부도전에서 역대 조사스님들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하는 모습.

이후에는 부도전에서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석전 스님은 율(律) · 화엄(華嚴) 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을)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해왔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부안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3월 28일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나누미근농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의 대표 사찰로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내소사 신도회 임원들도 사업의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의사를 내비치며 “반값 등록금 실현에 모범적인 나누미근농장학금에 적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음 내주신 주지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연간 300여 명의 부안출신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부안의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 발심수행장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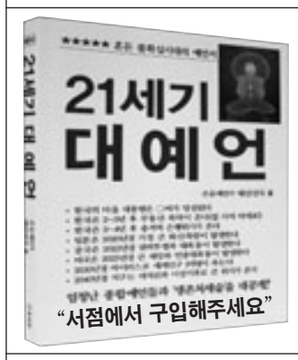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 추 교 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 & 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 정확한 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 개인지도

불사용 달마도
고급족자에 친필달마도를 초파일
불사및 선물용으로 저렴하게 그려드립니다
규격 : 40cm×50cm / 가격 :
18,000원 (족자 없으면 6천원)
10매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미리연락주세요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불교범음범패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010-5598-5078
부산 미타사 무상 합장

몇 백년 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소장하면
병고 사라지고 재수 대통
합니다. 귀신장난 소멸,
복주머니 안에 부처님 각종 염주,
도장, 차 열쇠고리, 각종
기념품 제작 합니다
017-297-6795
칠광스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토굴이 필요한 스님
연락바랍니다
(촌집, 경북 김천시 어모면)
010-5308-087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한분,
비구니스님 한분)
(경북 성주)
054-931-37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꼭 사물 잘 하시는 분
(60세 이상, 울산 백련암)
010-3034-21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한정 없는 무한한 신령스런 광명(光明)과 하나되면 나의 령신과 진아불과 통신하고 8만 4천 신명불들과 통화하면서 지상천국 세계일가 극락세계를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과실의 핵(核)씨 (仁)인과 같은 진인을 모집합니다.
덕유산 극락사 063-352-2888 김일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 0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이상, 강원도 양구)
033-482-3382
010-3764-3661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할 40,0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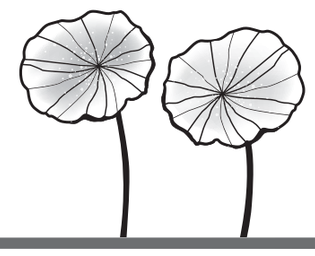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여래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 마음을 단속하는 데 있다. 너희는 욕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몸을 바르게 하고 순결히 하며 말에 거짓이 없도록 하라.

- 반니원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황토방.창고 ● 토지 1,500㎡
- 주변이 산, 주차장 보유. 남향이며 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5억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지라산
◎ 부지 : 1200평 ◎ 면적 : 7000평
◎ 법당 : 50평 ◎ 건물 : 1000평
◎ 요사 : 80평 ◎ 경관수려,대형차량진입
◎ 양도가 : 9억 5천 ◎ 양도가 : 3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 좋음. 조용한 사찰
- 가액 : 4억 4천만원(융자 2억포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내용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 (2차선 상가지역)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신축사찰,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서울시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잠실 인근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 월150만 시설비 15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 해발 800m
- 특징 : 사시장철 청정수 흐르는 개울이 마당과 붙어 있고 특히 돌담이 아름다움
- 작은 집 3채 (방 5개) 구들 난방. 태양광 전기 사용. 수행 공간으로도 최적
- 총 800여평. 가액 : 2억2천

010-3805-27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 스님 급한 관계로 급 양도
- 지장기도도량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5평 건평 : 92평
- 4층 건물
- 가액 : 5억 5천만원

010-5931-107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 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역전 앞 광장 3층 건물 중 3층. 역세권
- 실평수 28평, 방1개, 거실1개, 법당, 권리금 없음
- 포교원 철학관 하실분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조정할 수 있음

010-3840-5534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1번지
- 법당목재30평 요사채30평
- 종교부지324평 개인땅200평
- 법당 목재 건물
- 가액 : 3억(전세 9천)

033-434-1365
010-7128-13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6829-404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 시장 통닭 골목)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 보 5백만원 월 50만원 (실평수 60평) 시설비는 보신후 결정

010-8385-244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직동
- 2층 건물 중 2층 옥상에산신각
- 평수 : 40평 정도, 작은법당(대웅전)
- 상담실,종무소,방1,옷방1,욕실겸 화장실1
- 보증금 2000만원, 월세50만원, 시설비1500만원 (삼존불.백사위신중탱화, 조왕탱화)
- 집기일체(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2,대형TV
- ※작지만 최고 시설
- 역학보시는 스님 포교하기가 좋습니다

연락처 010-3660-93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3000만원,월7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150평(반지하),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3억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9342-02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1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외 1동
- 산속,차량진입, 경관수려
- 양도가 : 7억

010-4586-4525

단독주택 법당 안내

- 위치 : 세종시 행정타운 10분, 조치원 5분 딱중간지점 · 대로변 교통 편리, 차량유동인구 많고 근린,교육시설형성 좋음, 대로변. 포교원 운영 최적지임
- 1층 법당 요사채 산신 영가단 2층 옥탑방, 마당 ,주차장, 텃밭
- 가액 : 시보포함 2500 절충가능, 절살림 완비, 바로 법회가능
- 자세한사항 전화문의하세요

010-4598-291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0-5050-6252

별장같은 현대식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3억7천만원

010-5019-538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화악산
- 총 3,000평 정도
- 하천부지 약 2천평 가량
- 자연적으로 산에서 흐르는 물과 법당, 산신각, 요사채 있음
- 정각 2개, 수정각1개, 황토방
- 가액 : 12억5천만원

010-5009-1772
010-8719-7060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우림시 장오거리(위치 좋음)
- 2층 전체 약 30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현재 법회 중)

010-9598-5757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역세권 대형 포교원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역세권 잠실역 몽촌토성역 3분거리
- 4층 35평 종무소, 요사채, 찜질방 5층 35평 법당, 지대방 6층 공양간 10평, 다용도실, 창고 및 옥상
- 전 층 황토세라믹 시공 및 세라믹 찜질방
- 각 종 제의식시 일체 민원 없음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9637-235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 주차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대지 270평, 요사채 40평 목조로 된 신 건물, 법당 17평
- ※ 군부지 약 500평 사용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924-8969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길 199길
- 평수1만평 다웅전 약30평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2동 황토방
- 주차시설약 40대주차가능
- 사정이있어 급. 직접전화요
- 가격은 상담후결정 인연이 되시면 아주저의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다송사로 치시면 바로도량을 다보실 수 있습니다

010-4010-4070
010-5154-4070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답,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2억5천만원안고 양도2억7천만원 (현시세땅값7억5천만원) 절충가능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절터,암자터부지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 전, 임 730여평 (보전관리지역)
- 포장도로 접해 있음
- 항노화 힐링특구
- 가액 : 평당 95,000원

010-4661-7734
010-3848-245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日 사찰, 성소수자 커플 埋葬 시스템 도입

〈매장〉

쇼다지 사원, LGBT 커플 함께 안치하는 묘지 '안도' 운영

도쿄의 한 불교 사원이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묘지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후(死後)에도 함께 묻히길 원하는 성소수자들의 빗발치는 수요에 따른 것.

'Japan Times'는 에도가와 구에 위치한 쇼다지 사원(Shodaiji temple)이 성소수자들로부터 묘지와 관련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원 측은 "우린 다양한 성정체성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죽은 후 매장(埋葬)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묘지 관리가 큰 걱정거리다. 이에 사원이 운영하는 묘지에 함께 안치되길 원하는 성소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마츠미 요카타(Mutsumi Yokata) 전 일본묘지협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혼 커플의 매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친인척들의 반대와 공동묘지 운영자들의 기피 때문에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안치될 수 있는 공동묘지는 흔치 않다.

이에 대해 쇼다지 사원 주지 이노우에 스님(43)은 "내가 아는 한 성소수자 커플이 공유할 수 있는 무덤이 없다"면서 "불교는 성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두거나 어떤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커플이 묘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일본 사회서

성소수자들 요청 빗발쳐
커플 수용 묘지 시스템 도입
일본묘지협 "법적 제한 없어"
대리석 묘석에 두 유골 안치

그들의 매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쇼다지 사원이 성소수자 커플을 위해 추진하는 묘지 명칭은 '안도(安堵)'다. 단어 의미 그대로 죽은 후 안도하고 편히 잠들란 뜻이다. 이노우에 스님은 성소수자들이 사후에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비로소 평화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도'라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쇼다지 사원(Shodaiji temple)이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안치될 수 있는 묘지 시스템 '안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inquirer.net

'안도 묘지 시스템' 아래서 성소수자 커플의 유골은 높이 120cm 기둥 모양의 대리석 묘석에 보관되며, 커플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후 유골은 후에 사망한 사람의 6주기가 되는 날 '영원한 추모재' 공간으로 옮겨진다.

한편 'Japan Times'는 지난해 일본 대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의 정책이 오는 6월부터 공식 시행될 것임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삿포로시는 당초 4월부터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앞서 예비시행기간을 갖고 대대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

일본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지자체는 도쿄의 시부야 · 세타가야구, 미에 현의 이가 시, 효고 현의 다카라즈카 시, 오키나하의 나하 시가 있다. 하지만 정령시(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지자체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시)에선 삿포로가 처음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로힝야족 무장단체 "우린 테러집단 아냐"

경찰초소 습격 후 5개월 만 입장발표

지난해 10월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해 미얀마군의 '인공청소'를 촉발한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침묵을 깼다고 AP통신이 3월 29일 보도했다.

자신들을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라 칭한 이 단체는 "우리는 아라칸의 로힝야족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며 "우린 국제법의 자기방어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칸'은 100만 이상의 로힝야족이 거주했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의 명칭이다. 또한 이들의 단체명인 'ARSA'는 과거 '하라카 알-야킨(Harakah al-Yaqin, 믿음의 운동)'이란 이름으로 미얀마 정부에 대항했던 로힝야족 단체다.

이들은 이날 또한 "우리는 어떤 테러 집단과도 연관 없다"면서 "테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 · 인종적 요인에 의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개월 간 자신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소탕작전을 실시한 미얀마군에 전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10월 라카인 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발생하자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이 과정서 로힝야족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5000여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으로서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로 취급당하며 박해받아왔다. 2012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충돌로 100여명이 사망한 후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박아름 기자



마하리쉬 대학 마이클 딜벡 • 케네스 카바너 박사는 최근 명상이 약물로 인한 사망과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Forbes

명상, 약물 · 영아사망률 낮출 수 있다

마하리쉬大 마이클 딜벡 박사 외 1인

'명상의 효과' 연구논문서 밝혀

명상이 약물로 인한 사망과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하리쉬 대학의 마이클 딜벡 박사와 케네스 카바너 박사는 최근 '명상을 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 "눈을 감고 정신적으로 고요한 침묵을 하는 등의 명상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낮은 호흡률과 심박수 등을 보여 평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박사는 사회복지, 집단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유아 사망률과 약물사망률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했다. 그 결과 명상을 집단적으로 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감소해 사망 유발 요인이 평균 3.12%와 7.62%가 줄어드는 결과를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 사망률과 약물 사망률의 변화를 추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그들은 논문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과 살인,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와 사회기관에서는 명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17대 갈왕 카르마파 비공식 의식 '깜짝 결혼'

제17대 갈왕 카르마파 타에 도르제(Thaye Dorje)가 3월 25일 델리에서 어린 시절 친구인 Rinchen Yangzom과 결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갈왕 카르마파는 티베트 불교의 900년 된 카르마 카규파의 최고 수장이다.

'PRNewswire'에 따르면 비공식 의식으로 이뤄진 이날 결혼식은 갈왕 카르마파가 제자들에게 깜짝 성명을 발표하며 밝혀졌다. 올해 33세를 맞은 갈왕 카르마파는 결혼 후에도 카르마파로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더 이상 수도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 서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사제 서품 업무를 제4대 잠곤 콩트룰 린포체(Jamgon Kongtrul Rinpoche)인 Karma Mingyur Dragpa Senge에게 위임했다.

카르마파는 이날 "나의 결혼이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종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름답고 이로운 무언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美 불자들, 피난민 권익보호 도보순례 앞장

매일 12마일씩 걸으며 비폭력 순례활동 알려

스님들이 미국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州) 레버렛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평화사원의 스님들이 그 주인공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부터 도보순례를 이어온 스님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이민자들과 난민 거주 합법 승인을 위한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안전 공동체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제임스 엘드리지 상원의원이 연방정부에 올린 것이다.

'새봄맞이 걷기'라는 이름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부터 순례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불록 스님은 "이 순례활동은 9.11테러 사건을 보고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기위해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평화사원 스님들이 도보순례로 피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도 있다. 사진출처=The Eagle-Tribune

순례자들은 매사추세츠 주 북동부에 있는 로렌스시의 한 카페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고 북동부의 한 성당에 도착, 다음 할 일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메사추세츠 주의 뉴베리포트, 입스위치, 비벌리, 살렘 지역을 거쳐 그들은 보스턴 주의회 의사당에 '안전 공동체 법'을 제안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도보순례자들은 매일 8~12마일을 순례하고 있다.

불록 스님은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진행하는 이 '순례의 힘'을 믿는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순례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행하는 회원 중 하나인 토우비씨는 "나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고, 불교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불교도 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도보순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0〉 샥티의 인도를 따르라

명상의 기운은 저마다 달리 느낀다

몇 해 전, 지인이 오후 명상을 함께하자고 했다. 명상을 힘들어하던 그 지인은 나와 함께 명상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내가 물었다. "문제가 뭐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가슴이 메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슴에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다시 물었다. "기운이 느껴지는 부위는 어딘가요?"

그녀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했다. "양 눈썹 사이에 무언가가 누르는 것 같아요. 특히 눈을 감으면 심해지거든요."

"그 부위에 의식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 기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부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도 30분 동안 명상을 하다가 눈을 떴다.

내가 물었다. "어때요?"

그녀가 명상한 내용을 설명했다. "엄청난데요. 그 부위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호흡을 계속했는데, 잠시 후 열렸어요. 에메랄드빛의 초원에 있었어요. 햇빛이 하도 강렬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햇빛이 점점 거대해지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명상의 궁극적인 비법을 터득한 것 같았다. '기운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서 기운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신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운으로 자신만의 명상법을 찾아라. 그 방법을 찾으면 쿤달리니와 영적인 기운, 그리고 내면의 깨어난 현존이 당신의 명상을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면 여행에서 깨우친 것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런 깨달음은 명상의 기본이었고 처음 명상을 시작하며 받은 가르침이었다. 자신의 쿤달리니가 깨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자신의 명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를 보면 된다고 탄트라는 말한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다. 명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대단히 미묘해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야 나는 쿤달리니 샥티가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샥티의 증거

내면의 샥티는 미묘한 자극과 느낌, 감각, 통찰, 심상, 체득 등으로 우리와 소통한다. 이런 소통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파장을 맞추기만 하면 곧장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명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자. 일과시간이라면 내면에서 강하게 끄는 힘이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열망이 자주 올라온다. 이러한 명상의 욕구는 자연스러우며,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는 명상가에게는 허기나 갈증만큼 강하고도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충동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버스를 탔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졸리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낮잠을 자거나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잠깐 몇 분이라도 명상을 하고 싶은 충동에 응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욕실의 문을 잠그고 있어도 좋고, 운전 중이라면 차를 한쪽에 세워도 좋다.

쿤달리니가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도 있다. 내면에서 빛이 나타난다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며 관조하는 경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다. 사랑의 느낌이 떠오르고, 이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면 사랑이 커지는 사람도 있다. 각성이 몸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도 한다. 호흡이 빨라지거나 멈추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거나 앞뒤로 움직이기도 한다. 내면에서 다른 차원, 다른 경지로 떨어지거나 상승하기도 한다. 표면의식 뒤에 숨어 있던 각성이 전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다. 환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샥티의 증거는 상당히 미묘하다. 심장에서 맥박을 느끼거나 이마에서 무언가가 찌릿찌릿하거나 옆구리에서 기운의 흐름을 느끼거나 만트라를 염송하고 싶은 생각이 치솟기도 한다.

극적인 증거들에 비해 미묘한 증거들은 두드러지지 않아서 관심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미묘한 증거들은 극적인 증거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들은 내면의 샥티가 열리는 방향을 가리키는 흔적이자 발자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그러한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거기에는 교과서가 따로 없다.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소소한 변화 관찰하며
나만의 명상법 찾아라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몸 안의 기운에 파장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간단한 수련을 해보자.

(샥티 감지하기)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다음, 상체를 바르게 한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느껴본다. 어느 부위에서 기운의 흐름이 느껴지는가? 그 기운의 느낌은 어떠한가? 특정 부위에서 고동치고 있는가? 사랑스러움, 두통, 열망 등의 느낌과 관련이 있는가? 압박감, 열기, 딱딱함, 부드러움 등의 감각이 느껴지는가?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 보이는가? 내면에 나타나는 것이 자신과 친숙한 것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라.

샥티의 인도로 얻는 효과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듯이, 명상세계도 서로 체험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신만의 방식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개는 자신의 명상 체험을 확신하지 못한다. 특히 자신의 체험이 스승이나 경전이 말하는 체험과 다를 때는 더욱 그렇다. 명상은 마음이 죽은 듯이 고요해지는 것이라거나, 훌륭한 명상은 환상을 보고 극적으로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듣거나 배웠다면, 소소한 통찰이나 기운의 움직임, 기분의 변화, 작은 느낌 등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면세계로 가는 데 더없이 중요한 이정표인데도 말이다.

테라바다(Theravada, 소승불교의 하나)나 선불교의 스승들은 위에서 언급한 체험들이 현상계의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니 넘어가라고 말한다. 위의 체험들에 집착하거나 수행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탄트라나 은둔자들의 명상 전통에서는 내면의 현상을 보다 신중하게 다룬다. 따끔거림이나 압박감, 기운이 몸 밖으로 퍼지는 현상, 체온의 변화, 내면의 쾌감이나 황홀함, 환상, 내면의 노래나 소리를 듣는 현상,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 등을 내면이 변화하는 징표로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나 현상들은 모두 각성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샥티에게 기원하는 명상을 수련했지만 이 명상이 수련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볼 때면 언제나 경외심을 느낀다. 내면의 명상 기운에게 자신을 이끌어줄 것을 구하는 간단한 행위로도 새로운 기회와 깊은 명상의 공간이 열리는 듯하다.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현상에 의식을 모으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내 학생이 명상 도중에 샥티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고 나서 머리 한쪽에서 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샥티의 신호를 기다리는 수련을 하고 있던 터라 그 기운에 의식을 모으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자 기운은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면서 확장되었다. 그는 사랑의 물결에 둘러싸여 있는, 부드럽고 진동하는 기운의 세계로 이동했다. 신묘한 물속에서 안식하는 것 같았다. 그의 육체 감각은 용해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확장된 의식체임을 깨달았다.

한 젊은 여성의 경우, 처음 샥티의 도움을 기원했을 때 그녀 앞에 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명상할 때마다 이 빛의 장을 체험했다. 다른 여성의 경우, 미간에 있는 제3의 눈 센터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 압박감은 저절로 파란빛의 구슬로 바뀌었다. 그 빛에 집중하자 거대한 빛의 바다가 나타났고, 그녀는 명상이 끝날 때까지 빛의 바다를 유영했다. 그 후로 이마 부위에서 느낌이 계속 강해졌다. 이마의 느낌과 그 압박감은 명상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마에서 압박감을 느낀 이후로 어떻게 마음이 맑아졌는지를 이야기했다. "낮에 눈을 감고 있어도 수정을 통해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할 때도 저변에는 어떤 밝음이 있는 거예요."

샥티에게 하는 기원은 기도 명상의 중요한 세 가지, 즉 인식과 경배와 귀의를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다. 당신이 귀의하면, 다시 말해 여신의 인도에 온전히 헌신하면 여신은 당신 앞에 나타나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 당신이 먼저 여신에게 내맡기지 않으면 쿤달리니도 당신을 어찌할 수 없다.

귀의한다는 것은 늘 쉽지 않다. 명상에서든 일상에서든 통제하려는 마음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샥티가 우리에게 명상의 깊은 차원을 보여주려고 하면 종종 뒤로 물러나거나 저항한다. 그런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내려놓기'나 '내맡기기'의 중요성을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귀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귀의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명상이 깊어질 때만 찾아오는 열림이다. 집착을 놓는 수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 수련이다. 호흡은 명상에서 발산하는 역할을 한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잡념이나 저항감, 분리, 한계 의식이 밖으로 나간다고 느낀다. 날숨으로 저항감을 내보내는 수련은 호흡에 지장을 주는 정신근육을 풀어줄 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샥티와 분리된 느낌을 해소해준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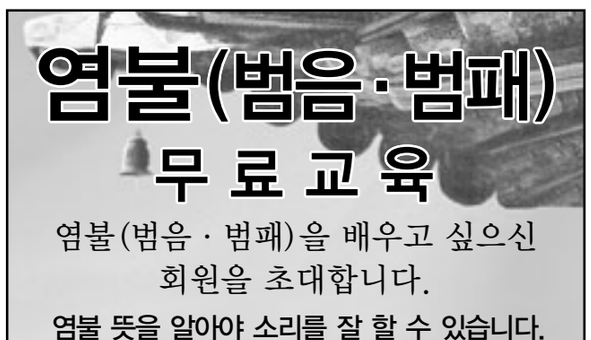
- 사찰명 : 무량사
- 법 명 : 동근(이근우)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남10길40의18

- 사찰명 : 단아사
- 법 명 : 태산(유규열)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49(구서동)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염불(범음·범패) 무료교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 ❖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암하고 은은한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 (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 (주)염불소리 / 전화 055)343-1191. 010-9471-2026



대행 스님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라는 걸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물리가 터질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질문 스님께서는 법문 중에 물리가 터져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물리가 터질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까닭에 공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숨쉬기를 '만든다' 하면은 벌써 그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연적으로 생명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고 나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고 얼마나 무서운 도리면서도 자비한 도리인지 모를 겁니다. 요만큼하나 새, 틈이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우리가 마음씀씀이를 쓰는 데에 전체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거기서 다 나옵니다. 틈이 없어요.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산중에 들어가서 돌아다닐 때에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목적지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인가 하면은 종점이고, 종점인가 하면은 시발점이 돼서 도저히 그것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다리를 떼어 놓은 것이죠. 떼어 놓다 보니깐 어느 산중에 근근 들어갔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장난이라고 할까요? 장난이 아니라 공부라고 할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절이나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같지 않으니깐 내쫓았습니다. 내쫓아도 안 나가면은 그냥 떠다박질러서 그냥 내쫓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는 겁니다. 왜 웃음이 나느냐. 글쎄, 왜 일부러 가서 거기서 자고 싶지도 않은 거를, 이 산울 밑에 어디 잘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일부러 잔다고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발길로 채이고 떠다박질러지고 넘어져서 피가 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말입니다,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야, 저 사람에게 괜히 내가 죄를 지어 주고….' 나는 나대로 우습기만 한 겁니다. 그래,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저 천막이나 쳐 놓고 있는 데 가서 자자는 거냐 이겁니다. 천막은 본래 쳐져 있고 본래 탁 터져 있는데. 그건 한 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아, 그거 얼마나 편안해. 세금 달라는 소리도 없고 와서 자란 말, 자지 말란 말도 할 거 없고 그런데, 풀 속을 헤치고선 거기 가서 턱 드러누우면 만사가 편안한 것을, 글쎄 그게 무슨 짓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얻어먹자고 들어가는 거야, 또. 얻어먹긴 뭘 얻어먹어? 아, 맨 먹을 건데. 이 세상에 먹을 게 없는 데가 어딨어요? 모든 풀이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를 그렇게 찾고 다니면 먹을 게 안 나와. 먹을 게 보이지도 않고, 또. 먹을 걸 찾지 않고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해골이 있고 뼈다귀 있는 데로 가겠다' 이런다면은 아예 먹을 게 나오죠. 해골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 줘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먹을 걸 짊어지고 다니거나, 자겠다고 어디 가서 구걸을 하거나, 노비를 얻거나 이런다면은 절대 그것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승엘 들어갈 수도 없고요. 산 몸으로 어떻게 저승엘 들어갑니까. 네? 산 몸을 가지고, 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마음이 죽어야 들어가지.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야단을 맞고 싱그레 웃고선, 본래는 그러한 마음을 굳이 가지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바로,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바대로 이것이 바로 탁마요, 이것이 바로 탁발이요, 이것이 바로 선법의 도리를,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선 스스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참나가 고마워서 말입니다, 싱그레 웃고서 '야, 이렇게 다친 이 무르팍은 금방 낫겠지.' 하고선 그냥 갑니다. 산으로 올라갈 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그런 말을 벌써 몇 번째 했으나 되풀이하죠.

큰 묘지에다가 등을 기대고 자려고 떡 앉아 있으니까 아, 거기서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나와서 신발 한 짝 훔치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묘지는 큰 우주의 근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묘지, 묘산은. 이걸 뜻으로 배워야지 어떠한 물질로다가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그냥 물질로 가 버리고 말아 버려요. 뜻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은 이승에 발 한 짝, 저승에 발 한 짝을 디뎌야 왕래를 하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별안간에 각중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나 놀라서 막 뛰었습니다. 그냥 막 뒤로 가는데 그믐밤에 뒤로 가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도 어린 마음이니깐 그렇겠죠.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아 궁둥이를 찍고 보니까는 그냥 얼마나 아프던지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번쩍 나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 샐 틈이 없구나!' 귀신이고 뭐고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왜?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로 들고,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서 들고 그러는데 그 자리의 조작이지 딴 데서는 조작이 없어, 도저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딴 데서 들어오는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지,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라는 거를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이리 팡 치고 저리 팡 치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석존께서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을 했고 자기가 항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턱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샐 틈이 없이 여기에서 나고 드는데, 날 때도 샐 틈이 없고 들일 때도 샐 틈이 없는데 아니, 각중에 뭐가 나서….' 하고선 딱 앉아 있으니까 물리가 터지는 겁니다. 우주의 섭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다 섭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서 계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그렇게 들이내는 게 빈틈없다는 그 사실에, 즉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자꾸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과 또는 물리가 터져서 참, 용이 됐어도 물이 없어서 헤엄을 못 치다가 물을 만나 헤엄을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계율과 깨달음이 연관이 있는지

질문 스님, 다른 스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스님께선 계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율과 깨달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답변 계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자기가 상식과 교양, 교육을 다 받고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근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지만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회의 계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려들이 사는 도량에는, 여러분이 사는 데나 우리 승려들이 사는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량' 하면 전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절 도량에서 사는 승려들은 승려들대로 계율이 있고 그렇지마는 그 계율을 무시하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계율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바란스가 맞아야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상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절에 들어가면 절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가는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계율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절간에서는 시켜서 하는 이 군대식 같은 그러한 계율이죠.

사회에서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도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계율은 제가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율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피해서 보도로 간다. 차 속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까 봐 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행해 나가야

☞ A17면에서 계속

들어가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오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 속으로 들어가질 않죠? 차를 피해서 내가 또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근본적인. 집안에서도 그럽니다. 아, 더러운 것은 좀 더 훔치고 깨끗하게 씻고 다듬어 놓는 것도 계율이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계율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돈을 천만 원을 주고 오늘 강도질을 한번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이전에,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계율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것을 계율에다가 딱 얽매어 놓는다면, 이북의 저 김일성처럼 딱 묶어 놓는다면 이건 독재예요. 자유 계율이 아니라 독재!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율 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강제 계율 속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포교를 하셨던 행원 스님이 중국으로 순례를 하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선맥이 끊어진 듯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 계율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자유스러야지,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리고 '식탐을 갖지 마시라' 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어따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생명수가 홀연히 나서 맛을 보는 거지,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일심으로써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있어도 자기 게 아니고, 먹을 게 많아도 자기 게 아니고, 호화로워도 자기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 언짢아할 것도 없고 또 슬퍼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이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율 이 자체가 말입니다, 계율이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몇 시까지 공양을 끝내고, 또는 아침에 몇 시에서부터 예불을 올리면 그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 참선한다 이런 계율, 또는 오늘은 오늘의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짜임새가 똑똑 떨어지게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이름해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려라면 그렇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으레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 씻고 여자는 밥한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뭣을 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몇 시간이면 벌써 어디까지 간다. 회사에 나간다. 장사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이름 붙이다 보면 계율이죠. 그리고 나가서도 올바로 해야만 그게 계율이죠. 우리가 올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계율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화돼 있단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를, 시간을 요렇게 요렇게, 요땐 요거를 하고 요때는 요거를 하고 요땐 요거를 하고, 요렇게 짜 놓는 거를 계율이라고 이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입산한 분들도 아닌데 계율 뭐, 이런 거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계율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철두철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참선이니까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똥도 옆으로 누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고, 똑바로 누면 쏙 똥이 들어가니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무슨 계율을 지키랬으니까 난 똥을 올바로 눠야겠다.' 이럽니까? 똥 눌 때도 그냥 저절로 '아, 한데다 누면 안 되지. 삐뚤어지면 저기 묻으니까.'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면 이거 모두 더러우니까.' 이렇게 스스로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교양이나 교육이나 또는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나가는데, 그래서 인간 자체가 첨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벌써 그 재력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앉아서 이 우주를 그냥 굴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율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문 스님, 똑같은 정도의 죄를 짓고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가책에 못 이겨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는 좀 지었기로서니 그게 뭐 그토록 가책 받을 바 있느냐.' 하고 이 정도로 일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지요?

답변 그게 두 가지가 다 글러요. 두 가지가 다 나쁘다고요. 가책을 받지 않을 일이라면 그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든. 그거는 그저 가서 사과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책 받을 일, 그건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하질 말아야 되겠지요. 또 '그까짓 걸 뭘 그래? 가책을 뭘 받아?' 이러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앞에 돌아오게끔 돼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가책을 받는다 한다면 양심이라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에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괴로워서. 그렇지만 '그까짓 걸 뭘 가책을 받아?' 이럴 때는 그 사람은 능히 그런 일을 더 저지르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기 이전에 잘못하질 않는다면 회개도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때는 혹시나 잘못되는 일로 갈까 두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야,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 놔라.' 이럴 때 '야, 그럼 나쁜 도둑질을 하고도 맡겨 놓으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짚고 넘어가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상식과 도의, 의리, 도덕을 갖추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서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으며 자식들에게 햇빛을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중도의 참,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간의 참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조성해 내지 않았나. 그렇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도둑질을 해도 거기다 맡기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아예 대꾸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마음 자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부터 헤아려야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주 만물만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참,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그 뼈다귀 없는 뼈다귀를 세세생생에 우려먹어도 그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젖 같은 그 물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고 끄달리지 않게 하는 보배예요. 우려도 우려도 줄지도 않고, 갖다 부어도 부어도 늘지도 않고 항상…. 세상에 그런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라도 부처님 하나만 모셔 놨다 하면 밥은 굶지 않으니 도대체 그 보배는 어떻게 생긴 보배기에 그렇게 좋단 말인가. 거죽 모습으로 생긴 것도 갖다 놓기만 하면 먹고 살게 해 주는데 하물며 모습 아닌 그 보배는 얼마나 윤택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아니, 가고 오고 그런 것도 없이 말이에요.

주인공은 어디에 있나요

질문 마음공부 하는 저희들이 관할 때에 주로 가슴 쪽에다 그 마음을 응시하고서 그쪽에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마음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낸다 하면 머리 쪽 그쪽으로 해서 무슨 흰, 아주 밝은 광채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곳을 의식하면서 관하는데요, 주인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해야 하나요? 물론 큰스님께서도 가슴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법문 중에 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라는 건 어디 특별히 있는 게 아닌 줄은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 봐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죠. 말을 수없이 바꿔서 말을 해도 그 말 나오는 데는 지적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적은 못하죠. 지적을 못하죠? 못하는데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한 그릇이 모여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그냥 그 에너지 소리가 하려면 나오고 안 하려면 막히고 그러죠. 그러니깐 이 모습이 있으니까 이 모습에서 공생으로써 공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제일이냐 내가 제일이냐…, 뱀이 가다가 '머리가 제일이냐 꽁지가 제일이냐' 이러고 싸우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몸체가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건 현실도 공했으니까 공한 대로 네가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공심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깐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닌 것 때문에. 아닌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깐 "귀신 방귀씨는 심었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예. 심긴 했는데 기르는 걸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거 뭐 어려우냐. 귀신 방귀씨를 심었으면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그걸 잘 아구창 나지 않게 먹이면 되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관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거든요. 그걸 '내가 잘한다' 이러고선 과용을 하지 말고 그냥 남한테 해롭게 하지 말고 하는 거,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도 남을 이익하게 했으니까 좋은 거죠. 좋은 마음이죠. 남이 이익하고 잘되는 거 보면 참 좋죠. 안되는 거 보면 참 심장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이 물 한 모금 먹는데 이거를 누가 먹었다고 할 수 있나 이겁니다. '이거 누가 먹었다고 할 수 있나' 가 바로 그 에너집니다.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자불이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이름 없는 이름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질문 저희들은 부처님을 믿는 것이 진리이자 사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은 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소를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 크고 어진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나도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금방 그 소는 소의 모든 무명을 벗고, 내가 그 의식을 내 가슴에다 모두 안아 주니까 내가 돼 버렸습니다. 내가 돼 버리고 그 소는 간데 온데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한 찰나에 바로 이 사람이, 못난 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어진 눈을 보고서 참 그렇게…, 그렇게 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고기는 남의 약이 되지마는 네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니 네 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돼 줘라. 그리고 네 마음은 내가 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 놓고는 거기서 한 바퀴 굴려서 또 내놓고 '너는 그렇게 어질고 착한 것이 어쩌다가 소 옷을 입어서 남들이 그렇게 부리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게끔 돼 있니?' 하고 불쌍히 생각했습니다마는, 나도 그 소와 둘이 아닌 까닭에 언제나 각각 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못 낳는다고 왔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열 달이 되니까 아주 아들을 떡두꺼비같이 어질게 낳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바로 과거는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없을 테고, 현실은 자꾸 돌아가니까 그저 한 마음이죠. 그저 자꾸 돌아가니까 공했느니라 한 겁니다. 그냥 아주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자꾸 돌아가니까요.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 불자 세상보기 |



석길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의인과 隨處作主의 삶

〈수처작주〉

서울 한 아파트서 발생한 화재
경비원 양 모씨 15층을 오가며
화재 알리고, 피난할 것을 재촉

심장병 있던 자신은 목숨 잃어
살신성인의 삶에 사회가 애도

"어디가든 주인공의 삶을 살라"
경비원, 아파트 주인처럼 산 것
주변 삶을 돌아보는 주인공돼야

3월 20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족들을 일터와 학교로 내보낸 주부들이 겨우 한숨을 돌릴 때쯤이었다. 예기치 않은 화재에 전기는 끊어졌고, 그 때문에 승강기도 멈추었다. 해당 동에 살고 있는 몇몇 주민들은 승강기 속에 갇혀버렸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닥친 위험에 다급해진 경비원 양 모씨가 15층짜리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급함과 피난을 재촉했다.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되고, 승강기에 갇혔던 주민들도 무사히 구출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몸으로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내렸던 경비원 양 모씨는 아파트 9층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소식에 주민들은 그의 애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다. 이 기사를 읽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이목이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쏠려있는 터라 더욱 놓치기 쉬운 기사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사를 읽는 순간 든 생각은 '안타깝다', '고맙다'는 마음이었다. 기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의 마음이 그랬으니,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가족의 마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다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려던 경비원 양 모씨 자신도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다.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대피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주민들에게 닥칠 위험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의 따뜻한 가슴이, 자신의 지친 몸보다는 먼저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런 순간의 그에게는 주민들이 자신의 가족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화재진압 그리고 인명의 구출은 소방관들에게 맡겨두고, 먼저 자신의 몸을 돌보았다면, 아마도 인명피해는 더욱 커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는데, 자신의 몸과 안위를 먼저 돌볼 가장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병든 몸을 몰아붙인 그에게서 '주인'의 마음, '가장'의 책임감을 목격한다.

가치관이 부재하다고 일컬어지는 세상이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살고 있다면,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안타까움쯤이야 쉽사리 외면하고 마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부되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터전이고 우리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 사회이기도 하다.

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어느 가장이 그 불행에 맞서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는다면 어느 가장이 외면하겠는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경비원 양 모씨에게 그 아파트는 단지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삶이 거기에 있었고 그의 또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그 아파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임제의현 선사가 남긴 말이다. 어디에 가든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디에 가든 가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남 탓하며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에게는 뜻 모를 말이기도 하다. 뜻이야 알아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만 내 주변을 돌아본다면, 조금만 내 주변의 힘든 이들을 관심에 둔다면, 마음에서 떼어놓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오늘 '의인'을 만나 내 삶이 주인공의 삶인지 되짚었으면 좋겠다.

社說

조계종 종회, 종헌개정 의지 있나

추첨제(염화미소법)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2가지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종헌개정안이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각각의 개정안을 다루던 특위는 해체됐다. 이로써 추첨제는 206회에 이어 3차례, 직선제는 207회에 이어 2차례 이월이다. 결국 어느 개정안이든 오는 10월 열리는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키 어려워졌다.

이월 사유는 상충되는 두 개정안이 종회에 상정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할 것인지 고심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지난 종회 때도 똑같이 제기됐다.

당시 두 특위가 내용을 조율해 다시 종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추첨제를 다루는 혁신특위는 그간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 직선특위는 회의가 성원되지 않는 등 동력이 떨어졌다. 성원이 됐을 때도 '원점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오고갔다.

중앙종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을 위한 공을 새 특위에 넘겼다.

종회가 과연 이 공을 다룰 의지가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면 새로운 특위가 열정을 갖고 논의한다 해도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조계종의 각종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금권선거·야합정치 등의 오명을 받아왔다.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최근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곤 있지만 그저 시간만 흐르는 모양새다. 중앙종회가 내년 만료되는 임기를 핑계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종도들의 무너진 신뢰와 비난뿐이다.

불교, '4차산업 혁명' 준비 필요

눈을 뜨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와 혈압을 체크해 오늘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냉장고 안을 검색하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물품을 배달시키고, 가정용 로봇이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보여주는 미래상이다. 매일 언론 지상에 나오는 이들 기술 용어는 이제 낯설지가 않다. 4차산업의 기술들의 발전으로 보여주는 편리함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미래 진행형'이 된 4차산업 혁명에 대해 불교학계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첫 시작은 한국불교학회가 알렸다. 한국불교학회는 3월 25일 '불교와 4차산업' 월례워크숍을 열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차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2월에는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학술계간지 〈불교평론〉도 올 겨울호 특집으로 '4차산업'을 다룬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교적 논의는 그간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라 이 같은 논의들이 고무적이고 반갑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잉여 노동이 발생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문화와 정신수행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 만큼 불교계가 4차산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시대를 선도했으면 한다. 또한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일선 포교단체와 관련 산업체가 합심해 미래 포교를 준비하길 바란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택시는 我相을 싣고…

며칠 전 택시를 탔다. 조수석에 앉고 보니 그곳은 달리는 작은 불국토였다. 룸미러에는 언젠가 불사(佛事)에 쓰였을 오색실로 만든 매듭이 걸려 있었고, 기어 아랫부분에는 알 굵은 염주가 자리하고 있었다. 조수석 앞으로는 어느 사찰이름과 풍경이 그려진 작은 달력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나무로 깎은 조그마하고 귀여운 동자승과 모형 목탁이 놓여있었다. 나 역시 불자인지라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기사님 불심이 깊으신가봅니다?"

"예. 제가 절에 오래 다녀서…."

기사님의 대답에 이어 다시 물어봤다.

"어느 사찰에 다니시나요?"

그러자 기사님 왈 "절도 절이지만 사실은 제가 웬만한 스님보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염불도 잘 하지요. 그리고…."

즉, 불교 의례며 불교 지식이 '웬만한' 스님들보다 더 나아서 여러 절에 다니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답이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지식이 많으면 혹시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셨나 싶어 언제, 어디서 불교 공부를 했는지 물어봤다. 우리나라 불교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은 몇 없으니, 몇 다리 걸쳐 내가 아는 분들을 기사님도 아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자 기사님은 대뜸, "이 분이 불교를 잘 모르시는구먼!"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어디서 불교를 공부하셨느냐는 나의 질문에 내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질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규정되고 나니 속 좁은 내 심사가 조금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기사님은 "요즘은 큰 사찰마다 불교교양대학이 있는데 나는 ○○절에서 불교대학 법사과정을 1기로 마친 사람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법사들은 다 내 후배들이지요"라고 거드름을 피웠다. 그리고는 염불할 때 목소리도 좋고, 스님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간다는, 자신의 '화려한' 신앙 활동 자랑을 이어가셨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이론, 한국불교의 문제점 등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다. 기사님의 불교지식이 불교에 관한 개론서도 거의 읽어본 적 없는, '근거 없는 자기만의 해석'임은 불교를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기사님은 혼자 신이 나셨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병들게 하는 탐(貪)·진(瞋)·치(痴) 삼독(三毒)에 대해 많이 듣지만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른다. 특히나 '탐심'을 욕심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을 늘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만심과 교만함, 즉 만심(慢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집착의 산물이므로 탐심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기사님은 삼독을 없애기 위한 공부인 불교를 알게 되어 오히려 '나, 나의 것'에 대한 아상(我相)이 더 커져버린 듯 했다. 그런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에 내 심사가 꼬인 건 내게도 불교를 조금 공부했다는 깜냥과 이에 대한 아상이 기사님 못지않게 가득했었기 때문이리라.

그날 그 택시는 염불소리와 작은 목탁과 부처님을 모신 불국토였지만, 실상은 스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불교법사'와 그런 법사보다 더 잘났다고 믿는 '불교학도'의 아상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뻥뻥!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대북
태징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건강을 위한 하루 한시간!
선무도
고요히 나와 마주하는 선호흡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선요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선무술!
연등회
"연등회 선무도 공연 4월 30일(일) 오후 12:40"
선무도 기초 과정 모집 중!
(무료체험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송 파 02-3431-4889 서대문 02-735-5349
종 로 02-763-2980 서 초 02-599-5554
www.sunmudo.kr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사)세계선무도총연맹



소이(SOY)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연꽃 향초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new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현대불교 Mandala

출판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로드
김왕근 著 '길과 꽃' B4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제 1142 호 B1



석지현 스님이 자신의 저작 대부분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 서재를 등뒤로 생각에 잠겨있다. 방대한 저술을 통해 한국 선수행의 저변을 넓혀온 삶이 스님의 모습에서 그려진다.

禪을 우리말로 내보인 산문 밖 선지식

산문 밖의 禪 석지현 스님 (시인)

출가와 만행이 곧 삶

13세 때 부여 고란사서 출가
종단 소임보다 인도로 '萬行'
세계 곳곳엔 선지식이 있었고
자연 만물은 스승이 되었다

선어록 번역 대작 불사

곳곳서 만난 수행은 禪의 원형
만행 이후 마음 향한 곳도 '禪'
"선어록, 한글로 옮기자" 서원

"언어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는 '선(禪)'을 그렇게 설명했다. 참으로 간단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한 줄의 문장이 있기까지는 방대한 문자를 넘어야 했고, 그 많은 문자를 넘기까지는 오랜 체험의 시간, 즉 수행의 시간이 있었다. 선어록의 백미인 〈벽암록〉과 〈종용록〉의 완역 완간 등 방대한 저술을 통해 한국 선수행의 저변을 넓히고 이끌어온 석지현 스님(72)이다.

출가, 그리고 삶 바꾼 만행

"불연(佛緣)이겠죠." 스님은 열세 살 때 충남 부여의 고란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출가의 이유 역시 간단히 한 줄로 설명했다. 그 한 줄이 있기까지도 역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불연'이라는 스님의 한 마디는 출가자에게 출가 이전의 시간과 출가의 이유를 묻는 것이 얼마나 미욱하고 불필요한 일인지를 새삼 일러주었다. 하지만 스님과 마주하면 유달리 그 미욱한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고, 우문의 말머리를 쉽게 감출 수 없다. 스님의 모습이 '스님'이라는 호칭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 지금의 모습이 출가 당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스님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출가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세간을 떠나왔지만 '현실'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간단치 않았어요. 어디에 머물러도 '현실'로부터 오는 번민은 늘 존재했죠."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1977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소임을 보고 있었다. 경전으로 하루를 살고, 생사를 걸고 좌복 위에 앉아도 출가로 이어진 숙업의 근원과 출가서원에 대한 답은 여전히 멀기만 했던 스님에게 한 칸의 책상으로 옮겨진 하루하루는 더욱 더 스님으로 하여금 '오늘'에 대한 회의를 품게 했다. 그 한 칸의 책상도 누군가는 지켜야 할 소중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스님이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다. 스님은 한 칸의 책상을 뒤로 하고 기약 없는 먼 만행 길에 오른다. 만행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인도. 불조의 발자국 위를 걷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살았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죠. 내가 알고 있던 불교,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알고 있던 선 등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모든 '앎'은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간을 겪어야 했죠.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상과 삶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양한 사상과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스님의 현재 모습은 그 시절에서 시작됐다. 각양각색의 삶을 보면서 스님은 남에게 보이는 것과 불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스님'으로 불리는 것은 규정이나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님은 자신의 자리와 모습에 대한 물음에 '비승비속'이라는 한 줄짜리 문장으로 간단히 답한다.

수행이 된 만행

"그땐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연까지 저에겐 스승이었어요.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힌두교에 대해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사유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부처님의 지난날을 떠올리며 나섰던 만행이었다. 하지만 인도에서 불교의 자리는 크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자리엔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스님은 약 3년여 동안 인도의 각지를 돌며 라즈니쉬, 크리슈나무르티, 묵다난다 등 많은 구루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상과 만난다. 그것들은 우리의 불교나 선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들은 같은 가지였다. 스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허물고 다시 쌓기 시작했다. 허물고 쌓은 일은 다름 아닌 넓어지는 일이었다.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 것. 지금까지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양성과 유연성을 경험하고 외연을 넓히기 시작한 스님은 차츰 우리 불교와 선에 원형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 원형에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원형에 다가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였다.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고, 과정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때부터의 '앎'이야말로 '앎'이었다. 자연까지도 스승이었다는 스님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인도의 구석구석을 밟은 스님의 만행은 훗날 네팔, 부탄, 예루살렘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이어진다. 스님은 그 길에서 많은 선지식과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났다. 그 시간들은 수행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될 것이다. 훗날 스님의 업적과 마주하면 그 시간들이 튼튼한 뼈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스님은 1970년대 후반 라즈니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해 라즈니쉬 열풍과 명상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작불사 〈벽암록〉 〈종용록〉 완역

"경전을 보는데, 전부 한자여서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뜻 모를 문장들을 우리 글로 옮겨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님은 지금까지 〈선시〉, 〈벽암록〉, 〈종용록〉, 〈우파니샤드〉 등 10여 종의 책 30여 권을 출간했다. 그 중 〈벽암록〉 완역과 〈종용록〉 완역은 가장 큰 불사다. 스님의 이와 같은 원력불사는 스님의 그 오래된 출가시절의 서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며, 만행 길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한자,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등 스님의 다양한 언어구사가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선이란 언어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념을 통해 개념을 벗어나는 작업인데,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 체험의 하나는 언어의 개념에 집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철저히 언어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자를 간화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묵조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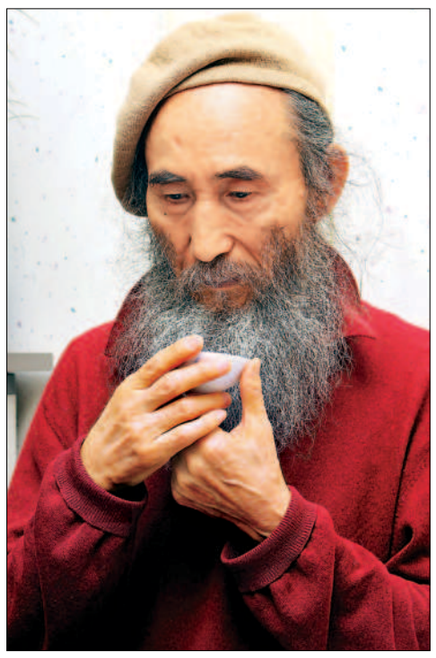
B2면에 계속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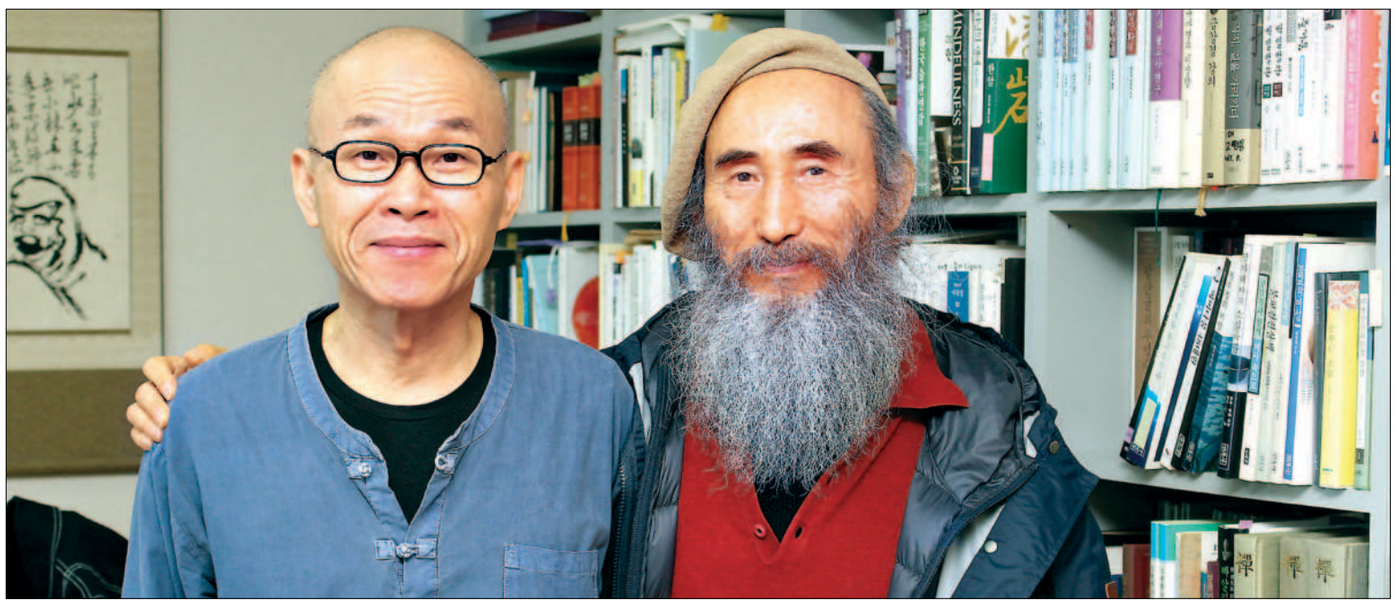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불일미술관 '이 시대 불모'展

B6
기획연재
일본 간사이 사찰 순례



“쉼 없는 수행, 방대한 禪語 번역 원동력”



윤창화 민족사 대표(사진 왼쪽)와 석지현 스님은 20년 도반으로 선수행 진작에 힘쓰고 있다. 스님의 〈벽암록〉〈종용록〉 등 주요 저작 출간도 민족사서 맡았다.



탄허 강숙 강좌서 〈벽암록〉을 강연하는 모습.



석지현 스님이 완역한 〈벽암록〉.

> “직관 필요한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禪수행 이로울 것”

석지현 스님은 …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에서 출가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으로 등단했다. 1973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을 지냈다. 1977년 이후 인도를 비롯해 네팔, 티베트, 예루살렘, 미국 등지를 돌며 다양한 사상과 선지식들을 만났다. 이후 방대한 저술로 한국의 선 문화를 이끌어 왔다. 편 · 저 · 역서로 〈선시〉, 〈선시 감상사전〉(2권), 〈벽암록〉(5권), 〈종용록〉(5권), 〈법구경〉 〈바가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관음경 강의〉, 〈행복한 마음 휴식〉 등 다수가 있다.

‘석지현 스님’ B1면에서 계속

긴 만행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선(禪)’이었다. 만행 시절 만난 다양한 사상과 수행은 우리 대중이 고민하고 있는 선의 원형들이었다. 선의 원형들을 보고 돌아온 스님은 고민하고 있는 대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결론은 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선어록을 제대로 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가 〈벽암록〉이다.

선어록의 백미이자 선종에서 종문제일서로 불리는 〈벽암록〉은 설두중현(980~1052)이 〈조당집〉, 〈전등록〉 등에서 옛 공안 100칙을 가려 뽑아 송을 붙여 펴낸 〈설두송고백칙〉에 원오극근(1063~1135)이 수시, 착어, 평창을 붙여 완성한 선종의 대표적인 저서다. 하지만 선 수행의 필독도서로 통하는 〈벽암록〉은 그 명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완역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번역 자체가 쉽지 않았다.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천 년 전의 언어, 그것도 선어를 오늘의 언어로 옮기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저자와 그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순히 글자의 뜻만을 모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은 독자를 ‘선(禪)’이라는 세계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토록 온전히 다가갈 수 없었던 〈벽암록 · 5권 한 질-민족사〉이 2007년 마침내 스님에 의해 깊고 풍부한 우리의 언어로 완역되어 이 세상에 나온다. 집필 10년, 교정 편집 작업 2년 등 스님이 집필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이룬 대작불사다. 석지현 스님의 〈벽암록〉은 〈벽암록〉의 정신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석지현 스님의 〈벽암록〉이 출간되자 교계와 출판계를 비롯해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내친 김에 〈종용록〉”이란 말이 스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벽암록〉으로 10년을 보낸 스님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종용록〉

〈벽암록〉 〈종용록〉 완역

〈벽암록〉, 12년동안 번역 · 교정
2007년 발간, 대중 관심 뜨거워
내친김에 〈종용록〉까지 완역
현재는 〈임제록〉 완역 집필 중

은 2015년에 세상으로 나온다. 역시 석지현표 〈종용록 · 5권 한 질-민족사〉으로, ‘완역’이다. 스님은 〈종용록〉을 내기 위해 육필로 A4 용지 2천매의 원고를 썼다.

“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집필을 통해 다시 한 번 선지식의 가르침에 감동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의 〈종용록〉 집필 7년 동안의 소회다. 또 한 번의 대작불사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벽암록〉보다 100년 늦게 나온 〈종용록〉은 〈벽암록〉과 쌍벽을 이루는 선가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벽암록〉보다도 낯선 이름이다. 〈벽암록〉이 간화선의 교과서라면 〈종용록〉은 묵조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화선 중심의 한국 선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종용록〉은 북송말 남송초에 천동정각(1091~1157)이 옛 공안 100칙을 가려 뽑아 공안마다 읊은 송을 ‘천동백칙송고’라 불렀고, 이 ‘천동백칙송고’에 만송행수(1196~1246)가 시중, 착어, 평창을 붙여 완성한 것이다. 〈벽암록〉이 선 이야기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종용록〉은 선은 물론이고 제자백가를 비롯한 중국의 모든 분야에 걸친 문헌을 총망라해 평창을 붙였다. 중국의 역사와 고사, 민간설화까지 포함한 방대한 내용이어서 〈벽암록〉과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은 번역으로 알려져 왔다. 공안을 깊이 파헤치고 참구하는 것은 〈벽암록〉과 같지만, 할과 방이 따로 없으며 잔잔하고 섬세한 설명이 그것을 대신한다. 간화선이 깨달음을 강조한다면, 묵조선은 수행정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종용록〉 100칙 공안 중 29개가 〈벽암록〉과 겹치는데, 이는 “간화선과 다른 견해가 있음을 뜻하며, 〈벽암록〉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불교에서 〈벽암록〉과 〈종용록〉은 영원히 볼 수 없을 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에서 〈종용록〉까지 하게 되었죠.” 그랬다. 스님의 원력은 그 오래 전 출가 당시의 서원과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수많은 대중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선어 번역은 수행 병행해야”

“구름은 피어 온 산이 새벽이요 / 바람은 높아 나무마다 가을이네 / 나그네 성 아래 머무나니 / 물결이 고기잡이 뱃전을 두드리네.”

1975년 출간된 석지현 스님의 〈선시〉 중 설잠 스님(매월 김시습)의 선시 ‘구름은 피어’다. ‘선시’라는 말과 장르는 이 책에 의해 처음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선시는 시를 빌려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시를 말한다. 앞서 말한 선어록을 비롯해 모든 선어는 이처럼 체험에서 온 언어다. 때문에 선어는 체험 없이는 쓸 수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언어다. 글자의 뜻으로 읽는 언어가 아니라 글자에 깃든 체험의 세계를 읽는 것이다. 때문에 아득한 시절에 선지식이 경험했던 적정의 순간을 오늘의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체험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선어를 번역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진을 병행해야 합니다. 글자만을 보고 번역하는 것은 필사에 불과합니다. 직접 수행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그 언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매일 오전에 참선을 통한 수행을 하고 오후엔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선어 앞에 앉는다. 번역을 하는 동안에는 글자 너머에 숨은 뜻과 만나기 위해 아득한 시절을 걷고 체험의 시간에 머물기도 한다. 수행을 위한 자리를 따로 찾아 나설 일도, 정해진 한 철을 찾아 굳이 이름을 적을 일도 없다. 스님에겐 쉼 없이 그 문자 아닌 문자 앞에 앉는 일이 곧 수행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선인 것이다.

스님은 〈벽암록〉, 〈종용록〉에 이어 〈임제록〉을 준비하고 있다. 원고 작업은 마친 상태이고 출판사의 교정 작업과 마무리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스님의 원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님은 그 동안 보아왔던 선어록에서 정수만을 가려 뽑는 작업을 시작했다. 1차로 ‘당 · 송’ 시대의 것을 작업 중이다. 이어 ‘원 · 명 · 청’과 ‘한 · 일’까지 갈 생각이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불사다.

“대중에게 선은 점점 더 필요할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빠른 시대입니다. 때문에 직관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은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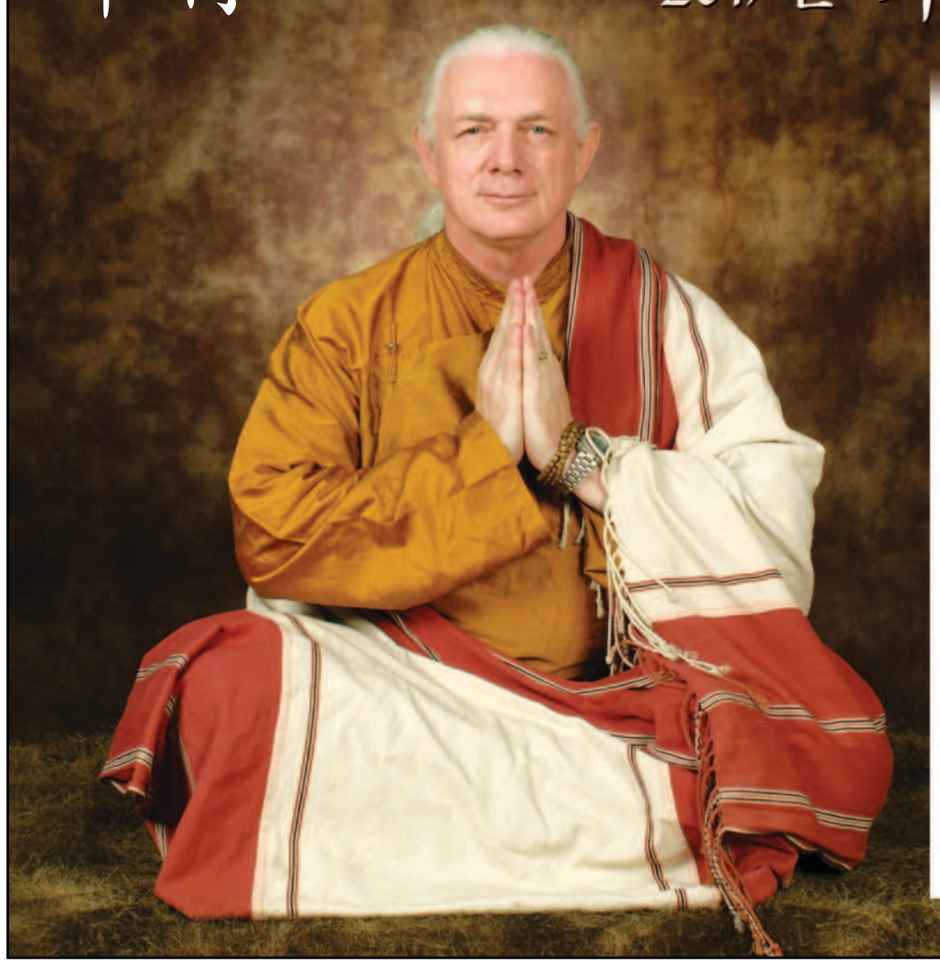
스님은 선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침저녁으로 세수 하듯이 5분씩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라고 한다. 꾸준히 그 시간을 쌓으면 힘이 길러지고 힘이 길러지면 그것이 선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3월 13일 개강한 ‘2017년 탄허강숙’ 강좌에서 〈벽암록〉을 강의하는 등 번역과 더불어 선의 저변을 위한 불사를 쉼 없이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스님이 번역과 강의 등 쉼 없는 불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쉼 없는 수행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의 첫 번째 이름은 수행자이며, 스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비승비속’이라고 했던 것처럼 스님에게 산문의 안과 밖은 따로 없었다. 앉는 자리가 곧 고요한 자리이고, 보는 자리가 곧 깨닫는 자리였다. 스님의 걸림 없는 모습이 또 하나의 공안이 될 듯하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奉行

2017년 라마글렌 방한 티벳불교 수행법 전수



따라불모 관정식

●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따라불모 관정식 / 아산 대안사

관세음의 자비의 눈물에서 태어나신 따라불모께서는 모든 자비를 기반을 하시여 깨달음의 에너지와 깨달음의 활동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십니다. 모든 붓다, 보살, 아라한이들은 이 깨달음의 에너지에 연결하여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불모는 모든 불보살님들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행(불업)은 깨달음의 원천 자체이기에 이 수행으로 모든 깨달음의 성공/성취와 세속적인 성공을 제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NAVER cafe.naver.com/lamaglenn(라마글렌)

(現) 달라이라마님의 주 스승이신
전생 깝제도제창님과 링린포체님 수제자, 현 달라이라마 법제자

행사 일정
● 4월 10일(월) ~ 4월 15일 (토요일) 밀레라파치유요가 안거 / 지리산 벽송사
● 5월 3일 (수) 오전 10시 ~ 부처님오신날 라마글렌법사님법문 / 아산 대안사
● 4일 20일(일) ~ 5월 21일(일) 티베트불교 수행차제법회 / 매주 일요일 5회, 오후 2시

법회 문의
● 대안사(충남 아산시 문화로 123-17) : 덕진스님 010-5431-0777
● 벽송사(행복수업) : 티소 010-6685-6957

바른 자세에 깃든 정성, 마음을 살린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⑦ 올바르게 절을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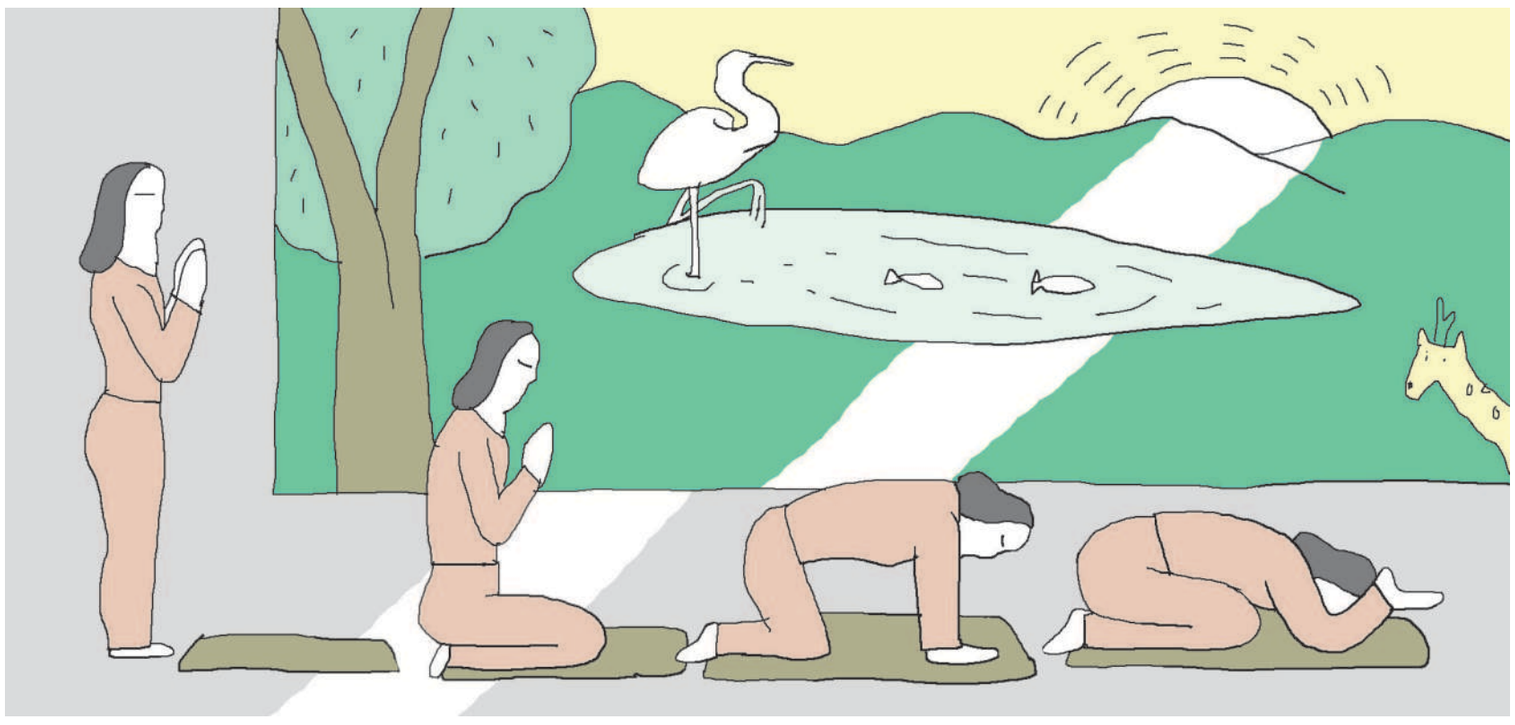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성철 스님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3천배를 시켰다는 지난 회의 글을 보고 용인 와우정사 해곡 스님이 전화를 주셨다. 성철 스님에 대한 글을 읽다보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재미있는 일화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성철 스님을 친견하려면 무조건 3천배를 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을 때,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은 정각회에서 해곡 스님(당시 KBS PD, 조계종 총무원 기획의원)에게 청을 넣었다. 성철 스님을 뵙고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도저히 3천배는 무리이니 절을 생략하고 어떻게 좀 친견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였다.

청을 받고 해곡 스님이 은사인 고암 스님을 찾아갔다. 당시 종정으로 해인사 홍제암에 계신 고암 스님을 통해 성철 스님을 설득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사정을 들은 고암 스님께서 해곡 스님을 데리고 백련암으로 올라가셨다.

"저기 말이야, 스님. 국회의원들이 3천배를 하지 않으면 스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오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나 봐. 포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은 3천배를 외상으로 좀 하든지 해서 만나게 할 방법이 없겠나?"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스님이 그렇게 완곡히 말씀을 하자 성철 스님이 가타부타 말없이 큰 소리로 웃기만 했다. 해곡 스님이 따로 성철 스님을 뵙고 다시 청을 드렸다.

"스님, 저 사람들 언젠가는 빚을 갚을 겁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꼭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데리고 와봐."

얼마 후 국회의원 120명을 태운 관광버스 몇 대가 해인사 백련암에 도착했고, 그야말로 3천배를 외상으로 한 채 법문을 들었다. 성철 스님의 첫 마디가 이랬다고 한다.

"네 놈들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중들은 부처님을 팔아 도둑질을 하니 모두 도둑놈들은 매 한가지제?"

성철 스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곤 그 후배 국회의원들을 불러 이렇게 호통을 치시지 않을까 싶다.

"네 놈들도 다를 바 없으니 선배들 대신 3천배 외상값을 갚으라!"고.

절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절에 대한 연재 글이 나가자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초보자들을 위해 절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히 써볼까 한다.

먼저 108배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방석이다. 맨바닥에 절을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아프기 때문에 반드시 좌복(방석)을 준비해야 한다. 집에 있는 방석도 좋고 혹시 집에 적당한 방석이 없으면 하나쯤 장만해두는 것도 좋다. 오래 전, 남편과 매일 절을 하기로 약속하고 조계사 근처에서 방석 두 개를 사가지고 오던 날의 그 설레던 마음을 잊을 수 없다. 남편은 방석을 사다놓고도 몇 년이 지나서야 절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좌복을 하나 사다놓는 것도 마음을 다지는 데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 친구 하나는 100일 절 기도를 끝낸 기념으로 예비사위와 딸에게 좌복을 선물했다.

그리고 절을 할 때 입는 옷은 몸에 꽉 끼이지 않는 면으로 된 편한 것이 좋다. 절을 하기 전에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다. 나는 절을 하기 전에 국민체조로 몸을 푸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해야 하나

절수행도 다른 수행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는 데 목적이 있다. 초보자들은 숫자나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철 스님의 문하에서 절을 배운 분들은 '예불대참회문'을 읽으면서 절을 한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참회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 경우는 '아미타불'을 소리 내어 부르거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간단한 경전을 외우면서 하기도 한다. 몇 해 전부터는 주로 명상음악을 배경으로 죽비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덕현 스님의 나레이션(108개)에 집중하면서 절을 한다. 맑고 진심어린 음성에 실려 나오는 첫 구절 '진실하게 살아왔는가'는 매일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깊이 다가온다.

언제 어디서 절을 하는 게 좋은가

정해진 규칙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절을 하는 당사자가 사정에 맞게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일 것이다. 그러나 추천하고 싶은 시각은 새벽 시간대이다. 새벽 다섯 시에서 여섯시 사이, 만물이 깨어나는 조용한 시간에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종일 기분이 상쾌하다.

그리고 절을 하는 장소가 어디가 좋으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매일 하려면 집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다. 집에서 가장 쾌적한 공간을 택해 방석을 깔고 하면 된다. 불자라면 가끔은 절에 가서 하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에 자주 가는 나는 새벽예불을 하고 나서 하는 108배가 가장 좋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주석하는 절에 가면 항상 예불이 끝나고 절을 하는 스님들이 있다. 가사장삼을 차려입고 사뿐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신심이 돋는다.

절 하기 전 스트레칭 권장
바른 자세 알고 성심 다해야
절 마친 뒤 잠깐의 좌선도

또 시내에 약속이 있을 경우 주로 조계사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돌아가는 길에 경북궁 앞 법련사에 들러 일과로 하는 3백배를 하고 나온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밝은 햇살이 흘러들어오는 넓은 법당에서 절을 하고 잠깐 좌선을 하고 있노라면, 온전한 행복에 젖곤 한다. 법련사에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 1080배를 한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렇게 절수행을 하는 곳을 찾아 동참해 보는 것도 좋다.

절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충 눈으로 보고 배운 것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번 잘못 배운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 교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절에 취재를 가거나 지나는 길에 들른 절의 법당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열이면 열 다르다. 나도 절을 오래 했지만 몇 해 전에서야 절을 전문으로 하는 법사님의 지도로 교정할 수 있었다. 절을 오래한 분들도 자신이 올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잘못된 동작으로 할 때다. 요즘 동국대에 볼 일이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정각원 법당에서 절을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들어와 삼배를 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럼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불자들은 법당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처님 앞에 합장 반배를 한 다음 오체투지의 자세로 3배를 올린다. 양 무릎과 양 팔꿈치, 이마의 다섯 부분을 바닥에 닿게 하고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 한다. 오체투지로 절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몸을 반드시 세운 채 두 손을 가볍게 모아 붙인다. 이를 합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의미와 산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합장을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따뜻해지는 걸 보면, 합장 자체만으로도 좋은 수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합장을 하고 몸을 반듯이 세운 자세 그대로 앉으면서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는다. 두 발은 붙이고 발끝은 조금 벌려도 된다. 코, 합장한 손끝, 배꼽, 발뒤꿈치를 붙인 곳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몸을 수직으로 유지하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꿇는다. 엄지발가락은 붙이고 발뒤꿈치는 벌려 엉덩이를 그 사이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앉는다.

세 번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은 뒤 엉덩이를 들며 상체를 앞쪽으로 조금 기울여 손바닥과 팔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두 손 사이의 간격은 머리가 들어갈 정도면 좋다. 이때 꺾어 세워 앉았던 발을 풀어 왼발 끝을 오른발 끝 위에 올린다.

네 번째,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마와 코끝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손바닥을 뒤집어 하늘을 향하게 한 뒤 귀 높이까지 들어올린다. 이때 팔꿈치는 바닥에 닿은 채로 있고 들어 올린 손바닥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엉덩이를 들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움직여 팔과 손바닥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이때 발은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직각으로 꺾어 세운다.

여섯 번째, 상체를 일으키며 무릎을 꿇고 앉는다. 처음 무릎을 꿇고 앉을 때처럼 엄지발가락은 붙이고 뒤꿈치를 벌린 뒤 그 사이에 엉덩이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앉으면 된다.

일곱 번째, 무릎을 펴며 기마자세로 일어나 두 손을 심장 앞에 합장하고 공손한 자세로 다소곳이 선다. 절을 다하고 나서는 바로 좌복을 치우지 말고, 10분에서 30분쯤 고요히 좌선을 하면 좋다. 여름에는 절을 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서 곧바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을 해서 맑은 기운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잠깐이라도 좌선을 하면 절의 효과가 더 높다.

몇 배를 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까? 마음과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려면 최소한 108배에서 3백배는 권하고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집중이다. 언젠가 해인사 법당에서 한 여든이 넘으신 노스님이 3배를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우주의 온 기운을 끌어온 듯 간절하고 진지했다. 번뇌를 떨치지 못한 3천배보다 정성을 다한 노스님의 삼배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도 정성과 간절함이 전부인 것처럼.

불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정해진 것은 없다. 몸으로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게 된다. 다만 자세만은 올바르게 할 것을 권한다.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두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 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29~2017.4.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부처님은 바른것 드러내기 위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길과 꽃

김왕근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만으로 열일곱이던 1966년, 도법은 김제 금산사로 출가한다. 2년 뒤인 1968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은 도법 스님, 출가자는 세속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평소처럼 생활한 그를 한 사미승이 불러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데, 니가 아무리 중이지만 어머니 아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에 ‘어머니’가 아닌 ‘삶과 죽음’ 문제가 가슴에 사무친 도법 스님은 죽음을 경험해보자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한밤중 다리 위에 선 그는, 장마로 물이 불어난 하천을 바라보다 퍼뜩 정신을 차린다. “아,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삶이 끝나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고 마는 것이구나.” 도법 스님〈사진〉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풀고 싶었다. 금산사에 가만있어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법은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합천 해인사로 길을 나선다.

간디와 화엄경

당시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수도였다. 성철 스님(1912~1993)이 구축한 엄격한 수행 가풍 아래로 도(道)를 찾는 수많은 승려들이 운집했다. 도법 스님 역시 문제 해결의 기대를 품고 해인사로 향했다. 하지만 성철 스님 가르침으론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이후 도법 스님은 김천 수도암, 순천 송광사를 거쳐 다시 해인사를 돌며, 참선해서 도인이 되겠다고 몸부림쳤다.

그렇게 보낸 10여 년의 끝인 1970년대 후반, 도법 스님은 간디 자서전을 만난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불살생을 실천했으며, 비폭력 불복종으로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영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도 영국을 미워하지 않은 간디.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도법 스님에게는 “석가모니 붓다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를 계기로 도법 스님은 붓다의 삶과 불교경전을 ‘사회적’ 시각서 재해석 했다.

그 무렵 도법 스님은 〈화엄경〉도 만났다. 이 경전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평등하게 연결돼 조화롭게 존재했으며 ‘생활이 곧 도(道)’임을 깨달았다.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은 도법 스님은 1990년, 도반들과 함께 불교의 풍토를 바꾸고자 ‘착한 벗들의 수행 공동체’인 ‘선우도량(善友道場)’ 결사운동을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불교의 현실은 올바른 수행의 부재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실천행으로 새로운 승풍을 바로 세워야 한다.”



도법 스님이 걸어온 생명평화의 길 조명
2004~2008년 생명평화 탁발순례 펼쳐
너와나를 함께 살리자는 취지서 비롯해

불교 개혁에 나선 도법 스님은 이후 94년 종단 개혁, 98년 종단사태에서 ‘개혁의 아이콘’이 된다.

생명평화의 길을 걷다

도법 스님의 이러한 성찰은 1998년 문을 연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1999년 창립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라는 모습으로 기어코 현실화된다. 이 둘을 통해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가 “세계, 산천, 초목, 부처님, 보살, 중생, 이것과 저것, 시간과 공간, 유정과 무정 등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출렁이는 생명의 큰 바다”가 되길 바라는 큰 꿈을 이루고자 했다.

드디어 2004년,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시작한다. 그해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2일까지 장장 1,747일 동안 3만 리를 걷고 8만 명을 만난 이 순례를 통해, 상호의존의 세계관과 동체대비(同體大悲,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자각하여 내는 큰 자비심)의 실천론을 축으로 하는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 사상은 완성된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때로는 누룽지를 끓여 먹고, 출발지에 집합해서 생명평화백배서원 절명상 하고, 걷고, 점심 먹고, 그날 종점에서 절명상 하고, 저녁 먹고 대화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성찰하고 확인한 생명의 구체적 양상이 사상에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후 도법 스님의 모든 행보는 ‘너와 나를 함께 살리는’ 생명평화의 길 위에서 이뤄진다.

정의(正義)를 새롭게 정의(定義)하다

2001년, 도법 스님은 한 인터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해야 할 대상에 화내지 않고 증오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파사현정(破邪顯正,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길을 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도법 스님에게 정의(正義)란 “한 몸인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생명의 길”이므로, 그는 ‘선(善)’뿐만 아니라 ‘악(惡)’과도 ‘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한다. 도법 스님은 악을 뿌리 뽑아 없애는 게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선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증오하지 않고, 악과 마주쳐 상처받지도 말고, 악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자며 머리를 맞대는 것이 된다. 이런 행보를 밟기에 도법 스님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출가 후 50여 년, 도법 스님 중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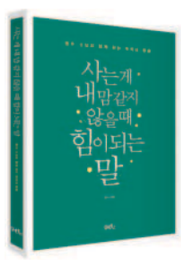
종교평화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서 다른 종교(기독교)에 무릎을 꿇는다고 비판 받았고, 조계사에 들어온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경찰에 내주었다고 비판 받았으며, 세월호 슬픔을 세월호의 기쁨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해 또 비판을 받았다. 그가 무슨 문제이든 대화로 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과정서 약자의 편을 드는 대신 강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도법 스님은 비판을 받는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일까? 비판을 하며 그와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대신, 비판을 하되 그와 함께하며 우리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책은 문제적 인간, 도법 스님의 입장서 그의 50여 년 승려의 삶을 돌아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信解行證’ 단계로 풀어쓴 쉬운 교리서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이 되는 말

범수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4천원



인도 불가촉 천민인 똥치기 니제(尼提)는 부처님을 길에서 뵙고 냄새나는 자신이 부끄러워 도망 갔다. 하지만 뒷걸음질 치다가 니제는 그만 똥장군이 벽에 부딪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니제는 땅에 엎드려 냄새나는 자신을 책망하며 부처님께 길을 피해 달라며 자신이 너무 더러워 세존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자 부처님께 돌아온 답은 자비였고 위로였다.

책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이 되는 말〉을 펴낸 범수 스님〈사진〉은 〈대장엄론경〉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신의 책은 온 세상에 있는 ‘니제’를 위한 것이라 말한다. 모든 사람이 가진 본질은 부처이고 보살이며 미묘한 향기를 내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사실 스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도 니제와 같이 부처님 앞에서 주춤 거리고 웅크릴 때가 있었다고 회고 한다. 범수 스님이 2000년도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처음 주지로 부임한 곳이 경북 군위에 위치한 신흥사였다.

처음 부임할 당시 스님은 “대웅전서 일어서면 지붕과 머리 사이 높이가 20cm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비좁고 낡은 곳이였다. 일 년 중 법회는 4번 정도 열렸고 신도는 열 손가락 안에 꼽았으며 게다가 환갑을 훌쩍 넘긴 보살이 가장 젊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 곳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포교가 불가능하게느껴졌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을 향해 ‘마음에 최상의 선한 법이 있다’고 하신 부처님을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작했다. 먼저 각 사찰과 연계해 불교대학을 열었다. 그 때 그곳에 참여한 불자들은 처음 들어본 쉬운 설명을 이해했고 믿었으며, 바라는 단계를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불자가 됐다. 그들은 이후 합창단과 봉사단을 결성하고 지역에 자비행을 실천했다. 여러 장애가 환희로 바뀌는 시간들이었다. 저자인 스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던 시기였다. 낮에 농사짓고 밭일을 하던 분들이 불교대학에 나왔고 봉사단들은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하고 문화재 지킴이를 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갔다”고 회고한다.

그 때 생각하고 느낀 내용들과 불자들에게 경전을 통해 답을 제시한 것을 불교계 신문에 연재했다. 그 가운데 47편을 모아 새롭게 구성한 것이 바로 이번에 펴낸 책이다.

포교 현장서 직접 썼기 때문에 스님의 글은 쉽게 읽히는 것이 장점이다. 현장서 직접 대중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골의 촌로(村老)가 읽어도 처음 불교를 만난 아이가 읽어도 될 정도로 편하고 일상적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일에 대해 자상히 일러준다. 하지만 그 중심은 부처님 말씀이다. 책은 신 · 해 · 행 · 증을 차례로 담아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이 마칠 때 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란 코너에서는 스님의 소소한 일상 법문도 만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저자 범수 스님은?
영천 은해사 교무국장, 군위 신흥암 주지, 마산 광산사 주지를 거쳐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법사
일우 스님이 들려주는 명쾌한 법화경 이야기!
행복한 삶,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법화행자의 길!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내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해설!
①『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336쪽/15,000원
②『법화신행 믿음』 342쪽/15,000원
③『영축산에 울린 사자후』 312쪽/15,000원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법구비유경
법구경은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지만 게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각 게송이 설해진 배경과 인연 이야기들을 통해 게송의 의미를 쉽고 명료하게 전해준다.
이동형 역/신국판/무선/400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일미술관, 봉축 기획전 '이 시대의 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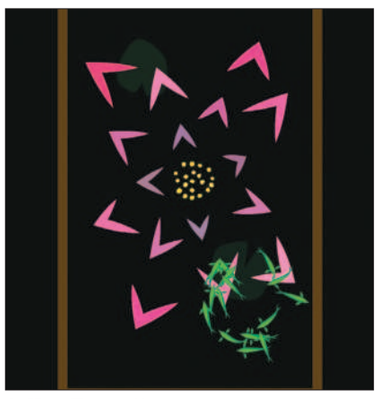
'현대의 佛母' 6인


삼매, 전상용.


四天王圖-南方護世 增長天王, 권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해기.


관음보살의 미소, 박명옥.


연꽃과 물고기, 박진홍.

붓다의 생모 마야(摩耶) 부인 혹은 붓다의 모체가 되는 완전한 지혜를 뜻하는 불모(佛母). 근대에 접어들며 불화나 불상을 만드는 장인을 일컫는 말로 전래되며, 불모란 타이틀은 불교미술계에서 하나의 영예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불모란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어원이 뚜렷하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불일미술관은 시대에 맞는 불모의 가치를 재창출해 현대 불교미술계를 이끌어갈 불모 6인을 소개한다. 바로 전상용(조각), 권지은(불화), 이해기(회화), 박명옥(공예), 노재학(사진), 박진홍(미디어) 작가다.

6명의 불모는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한 기획전 '이 시대의 불모전-아름다운 결집'을 통해 등장한다. 4월 19~30일 불일미술관 1·2관 전관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시대의 새로운 불모의 가치를 제시해 현대 불교미술의 중흥과 작가 인재불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불모 6인은 불교미술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중견 작가들 중에서 불일미술관이 선정했다. 중진 작가들보단 차세대 불교미술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인물들이 꼽혔다. 특히 기존 불모 개념에 포함된 불상·불화 등 작가 외에 현대미술의 주류를 이루는 사진과 미디어 분야를 포함시켰다. 불교계 최초 상설 미술관이자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현대시대 맞는 새로운 불모상 제시

현대불교미술 중흥·인재불사 도모

전상용·권지은·이해기 작가 등

사진, 미디어 분야도 폭넓게 포함

4월 19~30일 1·2관 전관서 전시

불일미술관이 엄선해 선정한 만큼 불모 6인의 작품과 그들이 이룰 조화가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상용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이수자로,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해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과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번 전시서 전 작가는 '나는 그대로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나타라자(Nataraja; 힌두교 대신으로 무용의 명수 '시바'의 별명)에서 기본 형상을 따왔으며, 조각상에 '나는 변함없이 여전하다' '난 곧 당신이다'란 이중적 의미를 내포했다. 힌두교적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한다.

권지은 작가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전통문화대 전통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올해의 예술가상서 '주목할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선 선명한 색채감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 묘사가 돋보이는 사천왕도를 선보인다.

이해기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해 봉은사 등 11개 사찰서 순회 전시할 만큼 불교미술계에서 잔뼈가 굵다. 이번 전시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야탁몽'을 비롯해 다수의 금화(金畵)를 선보이는 이 작가는 다년간 금화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박명옥 작가는 명화 페이퍼아트 대표로, 2007년 불교미술대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종이로 보살상을 만드는 박 작가의 작품은 원만한 상호(相好)와 특유의 멋스러움이 돋보인다. 특히 LED조명과 문살 등을 사용하며 작품마다 다변화를 줬다. 이번 전시에선 '관음보살의 미소' '극락의 부처님을 만난 날' '수월관음'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노재학 작가는 불교 사진작가로 전국의 전통사찰을 다니며 불교문화유산의 세월의 미와 정교함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선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도솔래의상' 벽화 부분을 찍은 '부처님, 꿈길로 오시다' 등 작품을 내놓는다.

박진홍 작가는 2016년 가진화랑서 개인전 '무시무종'을 여는 등 활동을 펼쳤으나 불교계에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터치모니터를 통해 간결한 단색과 절제된 영상미를 표현한 '연꽃과 물고기' 등 작품에 불교적 세계관을 드러내며, 故 백남준 작가 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불교미디어아트계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개관 21주년 기념 '조범제 초대전'을 4월 5~18일, 또한 부명 스님 개인전 '등불(體)&염원(用), 내 염원의 등불 展'을 4월 6~16일 각각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봄꽃도 보고 문화재도 보고 '일석이조 봄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4~5월 봄맞이 '봄길 따라 시간여행'

국립경주박물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속 문화재'

봄꽃도 보고 문화재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일석이조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따사로운 봄을 맞이해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야외전시 해설 프로그램 '봄길 따라 시간여행'을 4~5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봄꽃이 활짝 핀 박물관 정원을 거닐며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동기 시대 산청 매촌리 고인돌, 통일신라시대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고려시대 정토사지 홍법국사 실상탑(국보 제102호), 조선시대 옛 보신각 동종(보물 제2호) 등 중요 문화재 1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야외전시 해설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거울못 앞 청자정에서 진행되는 작은 음악회 일정은 △4월 15일 소프라노 김순화·이성경의 오페라 △4월 29일 가야금 산조 하경미 △5월 13일 오페라 어린이 합창단 △5월 27일 판소리 강경아 총 4회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서 가능하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6시와 7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테마전 '고성 옥천사 괘불' 전시설명회가 진행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077-9000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초등학생 단체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속 문화재'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를 주제로 진행되는 '교과서 속 문화재'는 올해 '박물관이 들려주는 황룡사 이야기'를 다룬다. 삼국의 사찰과 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신라의 대표 호국사찰인 황룡사와 황룡사 터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4월 3일~6월 30일 매주 월~금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 단체(30~200명)는 운영 기간 중 원하는 시간 1시간을 선택해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gyeongju.museum.go.kr) '교육 및 행사' 카테고리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11월 29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재 돋보기'를 진행한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박물관 야간 개장에 맞춰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담당자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신라 문화재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세부 일정 및 주제는 △4월 백제기와와 신라기와 △5월 금속 문화재 이야기 △6월 월지 △7월 경주지역의 선사토기 △8월 신라의 석탑과 석탑부재 △9월 백률사 약사여래입상 △10월 구석기~청동기 석기의 종류와 용도 △11월 특별전 '월성'이다.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서 가능하며, 프로그램 당일 지정 시간에 해당 전시관 입구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054)740-7591~2 박아름 기자

'뮤직·드라마·깨달음'으로 배우는 십우도

기원정사 자명 스님, 부산·서울 등 전국 공연

영덕 기원정사 자명 스님이 십우도(十牛圖)의 가르침을 '뮤드깨'란 새 장르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자명 스님은 2017 문화포교 프로젝트 '뮤드깨-한 웅큼의 빛'을 부산과 영덕, 창원, 서울, 울산 등 전국서 개최한다. '뮤드깨'란 뮤직(music), 드라마(Drama), 깨달음이 결합된 장르다. 자명 스님은 소를 찾아 떠난 목동이 마침내 '나'를 찾는 과정을 불교에서 견성에 이르는 10단계 과정으로 묘사한 '십우도' 가르침을 뮤드깨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은 2011년 한국희곡상을 수상한 정경환 씨가 대본 및 연출을 맡았다.

공연 일정은 △부산 한결아트홀 4월 16~17일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4월 19일 △창원 3.15아트센터 5월 19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6월 1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6월 18일이다.



뮤드깨 '한 웅큼의 빛' 공식 포스터.

자명 스님은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 유전자는 불교문화"라면서 "불교의 고유문화로써 폭넓은 계층에게 다가가 공감하며, 특히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성황리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불교로부터 전승되어온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장입니다.

2006년 어려운 환경속에서 '불교박람회'란 이름으로 첫 씨앗을 뿌린 인연을 이어 2013년부터 우리 종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전통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노력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 연속 유망전시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시규모와 관람인원의 성장과 더불어 향상된 전시품격으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종합박람회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연과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불교박람회가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참가업체와 작가, 그리고 박람회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2017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폐불훼석 아픈 역사 이겨낸 美弗 사찰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⑥ 고후쿠지(興福寺)



일본 국보로 지정된 도후쿠지 동금당과 오중탑 전경. 폐불훼석의 아픈 역사가 있지만 다시 복원돼 위용을 찾았다.

2009년도에 도쿄국립박물관과 규슈국립박물관에서 고후쿠지(興福寺)의 '국보 아수라전(國寶阿修羅展)'이 개최되었다. 도쿄에서 관람한 사람이 94만 6000명 이상에 달했고, 그때까지 일본 미술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규슈 관람객은 71만 명이상이었다. 이 숫자는 과거 규슈에서 개최한 모든 특별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신기록이었다. 도쿄와 규슈를 합쳐서 무려 165만 명이 아수라상 특별전을 관람한 셈이다.

아수라상은 일본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이다. 국보 아수라전에서 아수라상뿐만 아니라 고후쿠지의 뛰어난 불상들도 전시되었지만 전시회 타이틀이 될 만큼이나 아수라상은 고후쿠지를 대표하는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수라상 팬클럽도 있다니 이제 일본 국민의 아이돌이 되었다.

고후쿠지는 강대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귀족 후지와라(藤原)씨의 가문 사찰(氏寺)였다. 7세기에 후지와라 씨의 시조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는 정변 때 공을 세우고 후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고 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되었다.

후지와라노 가마타리의 유언에 따라 가마타리 아내가 당시의 수도였던 현재 시가현(滋賀賢)에서 가까운 교토 야마시나로 추측되는 위치에 야마시나데라(山階寺)를 조영했다. 야마시나데라는 천도에 따라 아스카(飛鳥)로 옮겨져 우마야사카데라(厩坂寺)가 되었다. 710년에 헤이조쿄(平城京) 천도에 따라 가마타리 아들인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가 우마야사카데라를 현재 고후쿠지가 있는 위치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고후쿠지가 되었다.

후히토 누나, 딸이 천황과 결혼하고 황자와 황녀를 낳았다. 후지와라노 후히토는 이렇게 황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후지와라씨는 황실과 함께 고후쿠지 가람을 정비하고 금당, 오중탑, 강당 등 건물을 잇달아 지었다. 나라시대 전기에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치르는 큰 사찰이 4개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후쿠지였다. 원래 귀족 사찰로 시작한 사찰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만큼 고후쿠지가 번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람이 완성된 후 화재가 자주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특히 11세기에는 거듭된 화재로 주요한 당탑이 모두 다 소실되었지만 후지와라 씨의 절대적인 권력에 힘입어 빨리 복구되었다. 고후쿠지는 가까이 있는 후지와라씨의 가문 신사(氏神社)인 가수가샤(春日社)와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는 생각으로 일치화되어 더 많은 장원(莊園)을 거느리고 야마토(大和, 현재 나라현) 일대에 군림했다.

그런데 오늘날 고후쿠지에 가보면 오중탑과 건물 몇 채만 남아 있다. 게다가 담장도 없어서 숭고한 사찰 경내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는 도다이지(東大寺)나 나라국립박물관에 가끔 가는데 고후쿠지 경내는 단지 도다이지나 박물관 쪽에 갈 때 지나가는 길이라는 인상까지 있다. 오랫동안 나라 일대를 지배했고 뛰어난 불상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고후쿠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15세기 전기부터는 다행히 300년 동안 대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717년에 강당의 등명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 당시 고후쿠지는 과거 같은 재력도 없고 후지와라의 힘도 없어서 일부 건물만 재건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타격이었던 것이 1868년에 메이지(明治)정부가 포고한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을 계기로 일어난 폐불훼석(廢佛毁釋)이었다. 신불분리령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국교화(神道國敎化)를 실현시키려고 거행된 정책이었다. 신불습합이란 신도와 불교의 일체화를 부정하고 신도를 원래 외래 종교인 불교에서 독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신불분리령이 폐불훼석으로 발전했고 일본 여기저기에서 불상을 파괴하거나 승려 환속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후쿠지는 가수가샤 신관(神官)이 된 승려도 적지 않아 책임자로서의 승려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고후쿠지를 폐사(廢寺)하기로 결정했다. 담장이 잇달아 헐렸고 법당건물들도 해체되거나 철거되었고 심지어 다른 시설로 전용된 건물도 있었다.

오중탑은 250엔(현재 250만엔 정도)으로 팔려고 했다. 그러나 해체할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중탑을 불태우고 구륜(九輪) 등 금속만 가져가려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불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오중탑은 이렇게 살아남았다. 복잡미묘한 세속의 이해관계가 지금 국보로 지정된 오중탑을 볼 수 있게 만든 이유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다행스럽기도 하다.



사찰에 있는 아수라상 관람 포스터. 도후쿠지 아수라상은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불상이다.

고후쿠지 봉안된 국보 아수라상
도쿄·규슈 전시에 165만 명 몰려
日 가장 사랑하는 불상 슈퍼스타

후지와라 가문 사찰였던 고후쿠지
유신이후 폐불훼석으로 폐사되기도
아픔 딛고 복원 불사, 현 사격 찾아

귀중한 불경, 기록, 문서는 가게 상품 포장지가 되어버렸고 훌륭한 불상은 파괴하거나 팔리거나 해외에 유출된 것도 있었다. 고후쿠지에 남은 불상은 당우에 거칠게 처박혔다. 당시 이런 상태를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해외에 유출되든지 누군가의 소장이 되든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다행이다. 유출된 불상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1880년엔 고후쿠지의 넓은 경내지는 나라공원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후쿠지를 복원하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면서 살아남은 당우의 수리와 공원화 된 경내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공원화된 경내지는 점점 고후쿠지 경내지로 회복되어졌고 지금도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고후쿠지의 귀중한 보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올해 관람 상황에 대하여 소개 한다.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고후쿠지 보물들이 주로 1959년에 완성된 국보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이곳이 수리중이어서 국보관 관람은 어렵고 경내에 있는 가리코도(講堂)에서 봄, 가을에 참배할 수 있다. 관람시기는 3월 15일~6월18일, 9월 15일~11월 19일(9:00~17:00)이다. 아수라상을 비롯한 팔부중상(八部衆像), 십대제자상(十大弟子像)을 포함해서 26점이 전시되니 꼭 놓치지 말길.

팔부중상과 십대제자상이 원래 서금당(西金堂)이라는 당우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번 가리코도의 전시는 현전하지 않는 서금당 공간을 재현하는 것인데 정말 감동적이다. 서금당이 후지와라노 후히토 딸인 고묘(光明)황후가 어머님을 추모하기 위해 734년에 조영한 것이다. 이 시기를 덴표(天平)시대라고 부르는데 729~749년 무렵에는 훌륭한 불상이 많이 탄생한 불교 예술이 꽃 피는 시기였다.

오중탑 옆에 있는 국보 동금당(東金堂)은 연중무휴로 관람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국보관의 휴관으로 국보관에서 동금당에 옮겨 안치되는 불두(佛頭)가 있다. 높이 1m 가까이 되는 이 불두는 수기한 운명을 겪고 지금 우리에게 고운 얼굴을 보여준다. 화재로 몇 번이나 소실된 동금당이 그때마다 복원되었지만 수리가 필요해져서 1937년에 해체 수리를 시작했다.

수리가 시작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본존 대좌 내부에 불두가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 날 동금당에서 작업을 했던 발견자 일기에는 놀라움, 흥분, 감동의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불두는 원래 아스카 야마다데라(山田寺)에 안치되었던 것인데 고후쿠지에 옮긴 후 1411년 동금당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머리만 살아남아 화재 이후 복원된 동금당 새 본존 대좌 내부 상자에 넣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불두는 685년 제작한 불상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알게 되었다. 하쿠호시대 불상가운데 자료로 제작년도가 밝혀지는 것이 드물어 귀중한 불상이다. 또 이 불두처럼 파손된 불상으로서 국보로 지정된 것도 드물다. 이 만큼 이 불두가 걸작인 것이다.

고후쿠지는 가마쿠라시대 뛰어난 불상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1180년에 병화로 고후쿠지 경내가 불바다가 되어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 불상이 거의 다 재가 되었다. 그 후 고후쿠지 복원 가정에서 가마쿠라시대 불사가 활약했고 가마쿠라 조각을 대표하는 불상들이 탄생했다. 국보로 지정된 가마쿠라시대 불상 가운데 절반 가까이 고후쿠지에 있다니 고후쿠지가 가마쿠라 조각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

4월 22일~5월 7일, 국보 호쿠엔도(北円堂)에서 천재 불모(佛母) 운케이(運慶)의 걸작을 볼 수 있다. 9월 26일~11월 26일에는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고후쿠지 중금당(中金堂) 재건 기념 특별전 '운케이'가 열린다. 난엔도(南円堂)에 안치되어 있는 국보 사천왕상 모두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3월 초 고후쿠지를 떠나 도쿄에 갔다. 운케이 명작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8월26일~10월10일에는 국보 오중탑, 국보 삼중탑 초층 내부도 공개되니 시기에 맞춰 방문하는 것도 좋다.

고후쿠지 주변 볼거리



고후쿠지에 가면 고후쿠지 남쪽에 있는 나라마치(奈良町)에 가보길 권한다. 아스카데라를 소개했을 때 해이조쿄 천도에 따라 아스카데라가 해이조쿄로 옮겨 간고지(元興寺)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라마치는 옛날 간고지 경내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전통 가옥을 활용한 카페나 식당, 옥가게, 잡화점이 있는 나라마치는 우아스러운 교토와 다른 분위기가 있다. 나라마치에서 집집마다 처마에 빨간 인형을 달아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원숭이인데 악운이나 재앙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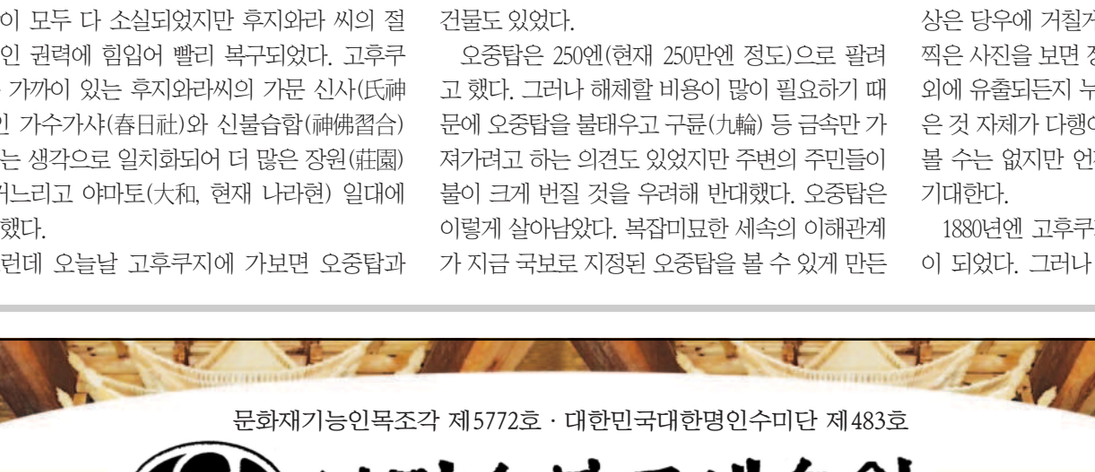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누가 먼저 날 것인가

적묵당 공포엔 봉황의 머리와 날개가 그려졌다. 적묵당 현판이 걸렸으니 단청은 없어도 될 것이고, 눈까지 그렸으니 날기만 하면 될 텐데, 봉황은 날지 않고 있다. 어디선가 날아온 딱새 한 마리가 봉황의 날개 끝에 앉아 봉황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딱새와 봉황 사이의 시간은 멈추고, 적묵당의 현판은 고요하기만 하다. 누가 먼저 날 것인가. 적묵당 한 철 살면 알 수 있을까.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⑦ 부처님 발가락에 피를 낸 데바닷다

부처님 해하려한 죄, 어찌하려나

석가족 청년들과 같이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던 데바닷다(提婆達多)는 욕심꾸러기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신통력을 지니게 되자 더욱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섯 신통력을 모두 지녔다. 나도 무리를 거느리고 싶다. 나도 부처님이라 불려야겠어."

그는 먼저 마갈타 나라의 왕자 미생원(未生怨)을 꾀어서 자기 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생원의 궁전을 찾아가 허공에다 몸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궁중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허공에 서 있는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 미생원도 나왔습니다.

데바닷다는 허공에 선 채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습을 감추고 허공에서 목소리만 내기도 했습니다. 몸뚱이 절반만 나타내, 설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에서 연기를 뿜어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신통력 도사로군." 감동한 사람들이 데바닷다를 향해 예배를 올렸습니다. 데바닷다는 금방 아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쁜 영락으로 몸을 꾸민 아기가 돼, 미생원 왕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왕자의 품에서 엎치락뒤치락 뒹굴다가 왕자의 손가락을 빠는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미생원은 섬찍, 두려운 생각에 머리털이 일어서는 것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두렵다. 그대는 누구인가?"

데바닷다가 모습을 본디대로 되돌리고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두려워 마세요. 나는 데바닷다라는 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여 왕자 미생원은 데바닷다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두 번 아침 · 저녁으로, 5백 대의 수레에 양식을 싣고 가서 데바닷다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5백의 솥을 걸고 공양을 지어 데바닷다와 그 무리들에게 바쳤습니다.

데바닷다는 미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를 따르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부처님이 될 거요."

미생원은 '예, 예' 하며 데바닷다를 모셨습니다. 왕자 미생원이 데바닷다 교단을 돕고 있다는 말을 들은, 마갈타의 빔비사라왕은 왕자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다가는 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부왕과는 생각이 달랐던 미생원은,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던 빔비사라왕은, 아침 · 저녁 7백 수레와 7백 개의 솥으로 부처님 교단을 돕기로 했습니다. 왕자보다 많은 수레, 많은 솥을 내놓은 것은 왕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과 겨루어오던 데바닷다는 빔비사라왕의 7백 수레 공양에 질투를 내고 며칠 밤낮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만 신통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

신통력으로 남을 속일 수 없게 된 데바닷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자리를 물려 달라고 해 봤으나 되지 않자, 마침내 데바닷다는 부처님 자리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해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척으로 따져서 사촌형님을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림 · 강병호

데바닷다는 미생원이 보내준 두 사람의 자객에게 갑옷과 칼과 몽둥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부처님을 해친 다음, 가던 길로는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다시 네 사람에게 무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넷은 저 두 사람을 따라가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하거든, 죽이고 다른 길로 오너라."

그리고 다시 여덟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여덟은 저 네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들을 죽이고 다른 길로 오너라."

자객의 수를 다음에는 열 여섯, 그 다음에는 서른 둘, 그 다음 예순 넷까지 배로 늘여서 보낸 것은 뒷사람이 앞 사람을 죽여서 누가 부처님을 해친 것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바닷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먼저 나선 두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을 해치다니, 그럴 수 없지."

멀리서 부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모습은 자비로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이 되어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에게 계율을 말씀하시고, 삼귀의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고마운 부처님이셨습니다. 두 자객은 부처님 법을 가정에서 지키는 우바새가 되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오던 길로도 말고, 돌아가려던 길로도 말고, 또 다른 길로 가도록 하라. 그래야, 데바닷다가 보낸 백 스물 여덟 자객이 모두 살게 되느니라."

두 사람의 자객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오던 길, 가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자 데바닷다가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 둘은 나가든지, 죽어버려! 어째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단 말이냐?"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니 다음 네 사람, 다음 여덟 사람, 열여섯, 서른둘, 마지막 예순 넷까지 하나도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자리를 빼앗으려던 데바닷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난 데바닷다는 영취산에 올라가 큰 돌을 들어, 멀리서 부처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부처님이 위태로운 걸 본,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그 돌을 받아서 영취산 산머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 부처님 발가락에 맞았습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 데바닷다의 죄를 어쩌죠? 계속,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질 테지요.

출처 : <사분율> '13가지 상가바세사'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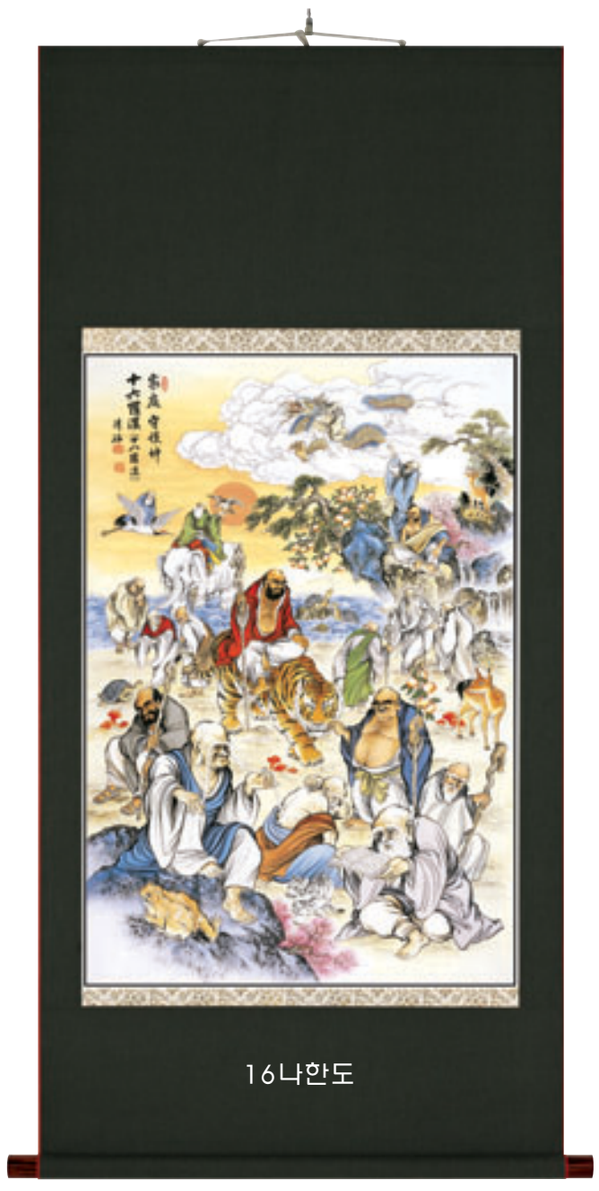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과 목 : **풍속화 달마도** ● 강 사 : 청곡 이한동 화백
● 장 소 : 서울 을지로 세운대림상가 10층 55호
● 일 시 :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 수강료 : 16만원 5천원

● 과 목 : **문인화, 수묵화** ● 강 사 : 도선 김용현 화백
● 장 소 : 서울 을지로 세운대림상가 10층 55호
● 일 시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 수강료 : 15만원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